

동남권NPO,
연결을 경험하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NPO공론장 기록집

서초·강남·송파·강동의 의제발굴 프로젝트

Records of Public Forums for NPO

일러두기

이 책의 내용은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에서
진행한 2020년 [NPO공론장]사업의
각 자치구별 공론장 발제 및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동남권 NPO, 연결을 경험하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NPO공론장 기록집

서초·강남·송파·강동의 의제발굴 프로젝트

Records of Public Forums for NPO



I. 들어가며

센터장 인사말

동남권 NPO공론장 어떻게 시작되었나

II. 자치구별 NPO공론장 기록

서초구 : 일상에서 인권의 온도차이를 줄이는 101가지 방법

송파구 : 모두의 밥

강남구 : 청년 주거권 - 청년, 강남 살자

강동구 : 기후위기 시대 -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III. 전체 공론장

동남권 NPO공론장 개요

- 2020 활동 공유
- 2021 공동의제 토론회



센터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장 위정희입니다.

우리 센터는 동남권의 시민모임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을 알리고, 확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NPO공론장은 특히 지역의 활동가들과 함께 한 해 동안 다양한 공익활동의 의제를 나누고, 고민할 수 있었기에 더욱 마음이 갑니다.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 진행된 네 번의 공론장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자치구별 활동가들이 함께 공론의 의제를 만들고 과정을 설계하고 기획하였기에 더 의미있었으며, 센터로서는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귀한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4개구의 공론장에서는 자치구별 관심에 따라 다양한 의제들이 발굴되었으나, 여러 차례의 논의 이후에는 점점 모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의제들로 모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인권'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관계들 속의 차별에 대하여, 강남구는 청년들의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주거'에 대한 의제를 선정하여 고민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모두에게 당연하고도 필요한,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먹거리'를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단체의 활동을 공유하고 실천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12월 15일 전체 공론장은 단순한 공유와 토론을 넘어서 2021년을 준비하는 액션 플랜을 위한 자리이자, 더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고민과 의지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정희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장)

동남권 NPO공론장 어떻게 시작되었나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동남권 시민사회와 NPO들이 단체별 의제를 넘어 시민사회의 가치에 기반한 의제 확장을 위한 공론장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론장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젠더, 환경 의제 등 공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매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동남권NPO지원센터는 자치구별 워킹그룹의 사업 영역 중에 자치구별 공론장 기획을 가장 중요한 주축사업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각 자치구 워킹그룹은 자치구별 공동의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의와 워크숍 방식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인권(서초구), 청년주거(강남구), 먹거리기본권(송파구), 기후위기대응(강동구) 등의 공동의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자치구별 공론장 운영을 통한 공동의제 도출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는 자치구별 워킹그룹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구별 의제를 동남권 차원에서 공유함을 통해 동남권 공동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공동의 캠페인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경험도 축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동남권 시민사회와 NPO들의 역량 강화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고, 동남권NPO 간 지속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공병각(네트워크지원 팀장)

일상에서
인권의 온도차이를
줄이는
101가지 방법

2020.07.16

NPO공론장 기록 서초구

공론장 의제 선정 과정

-워킹그룹 회의

서초구 공론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초구 워킹그룹은 4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워킹그룹 1차회의에는 서초구 NPO활동가 11명과 동남권 NPO센터 관계자 4명이 처음 만남을 가졌다. 먼저 센터의 설립 취지 및 지원사업에 대해 위정희 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진진가 방식의 자기 소개 및 나의 공익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서초지역에 필요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각자의 의견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모임이었지만, 성인지 교육, 골목문화 조성, 민주시민교육, 옥상 등을 활용한 커뮤니티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의제들이 제안되었다.

2차 회의에서는 공동의제 찾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워크숍 방식의 모둠별 토의를 진행하였다. 12명의 활동가들이 3조로 나누어 지역의 관심 의제를 숙의하는 과정을 가졌고, 조별로 협의된 의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초의 미디어 환경(지역문제 홍보, 소통) 중요성, 젠더, 인권, 생명존중 의식을 문화예술과 농업으로 키워보는 예술제, 인권과 주민자치(협치)/마을공동체 속 민주시민교육 등의 의제가 제안되었다.

3차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서초구 공론장 의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는 시간으로 <일상의 인권과 함께 하는 자치>에 대해 김현옥 언론인권센터 본부장의 제언을 듣고, 모둠별로 인권과 관련된 공론장 기획안을 토론하였다. 최종적으로 '일상에서 인권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101가지 방법'을 의제로 인권 관련 실천과제들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공론장 개요

일상에서 인권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101가지 방법

2020.7.16 (목) 14:00~16:30
 eduis (서초구 방배동 동작대로 50, 6층)

시간	내용	참여자
13:00 ~ 14:05	등록	사회 : IMI미래코칭교육 김대영
14:05 ~ 14:10	공론장안내	사회자
14:10 ~ 14:50	기조발제 -일상에서인권감수성온도1도 올리기	언론인권센터 김현옥 미디어인권교육 본부장
14:50 ~ 15:10	실천사례발표 -관심의눈	한국여성의전화 권송자 이사
15:10 ~ 15:20	휴식	
15:20 ~ 16:20	모듬 토론, 발표	토론진행자
16:20 ~ 16:30	소감나눔, 마무리	사회자

서초구 NPO공론장의 의의

공론장 안내

이번 서초 공론장의 목적은 우리 안의 내재된 인권 감수성을 일깨우고 일상 속 차별의 언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실천과제를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3차례의 회의를 워킹그룹 안에서 진행하며 지역의 의제를 찾고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론장의 기획 역시 모두가 동참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 사회자 **김대영**(IMI 미래코칭교육 크리에이터)

기조 발제

일상에서의 인권감수성 온도 1도 올리기

- 김현옥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인권교육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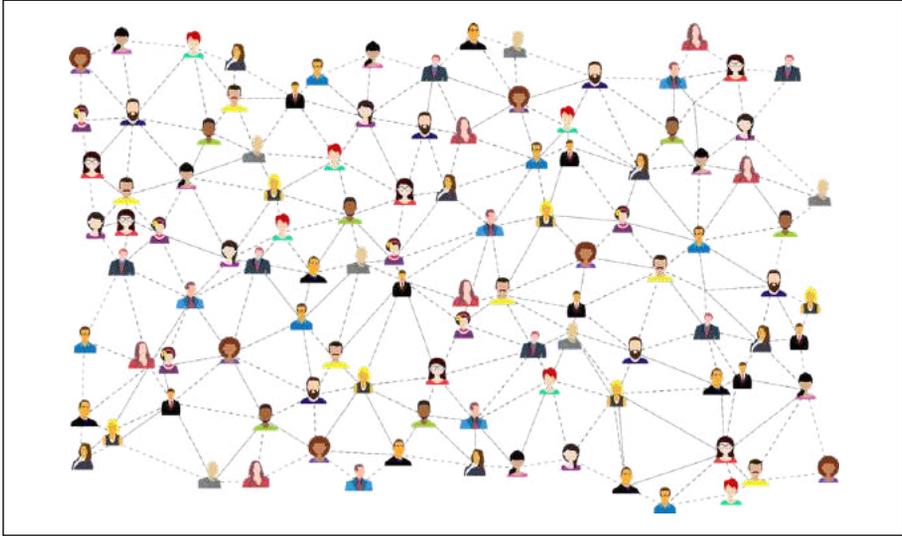
[기조 발제: 일상에서 인권감수성 온도 1도 올리기/김현옥]

**#네트워킹 #연결된 삶
#타인의 삶 #다름#혐오 #차별**

저는 오늘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또 공동체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구현되는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네트워킹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피로감도 안겨줍니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연결을 외면할 수도 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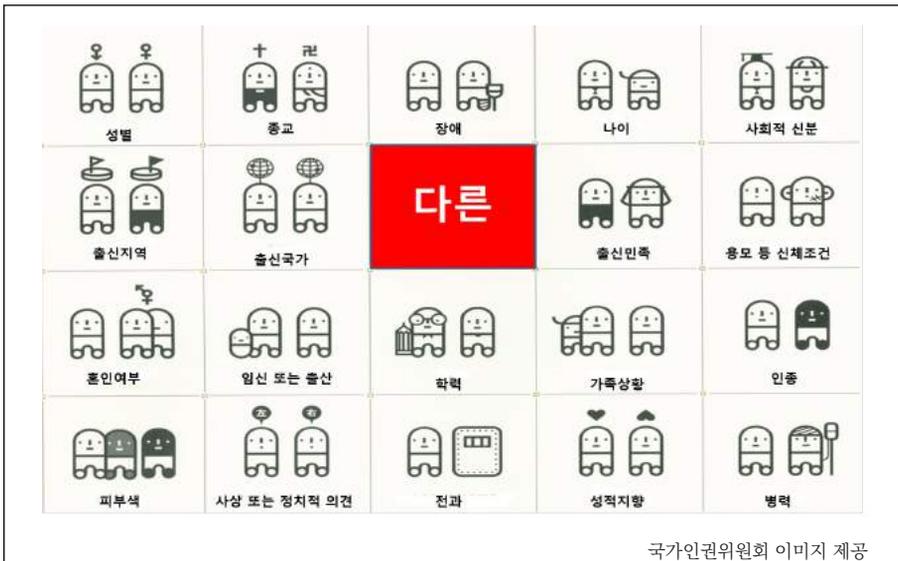


미디어를 통해 나의 삶을 타인에게 드러낼 수 있고, 우리 또한 또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진 지금 시대에 우리는 각자의 다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 학력, 성별, 종교, 연령, 정치적 성향, 외모, 성적 지향 등 여러 가지의 차이를 '차이'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지, 혹은 그 차이를 '열등함'으로 바라보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름'을 우열로 판단하여 그것을 혐오나 차별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혐오 : 매우 싫어하고 미워한다.

혐오 표현에서 혐오는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것을 넘어서 어떤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혐오’는 ‘매우 싫어한다’를 넘어선 그 이상의 감정입니다. ‘혐오’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광장과 공론의 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힘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성적소수자는 쉽게 혐오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지향을 사회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가 쉽죠. 한 개인의 ‘다름’은 단순하게 한 가지 요소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다름’이 중첩되고 그 중첩된 다름의 요소들은 그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라는 성별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학력, 주거 수준, 직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다름으로 생기는 부당함과 차별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우리가 시민으로서 함께 바로 잡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본인은 차별이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차별과 혐오는 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미디어가 조장하는 차별
#SNS
#불안한 미래 #제로섬사회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 시대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그것은 종래에는 분노로 축적됩니다. 축적된 불안과 분노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나 타인을 비하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로 연결됩니다. 가볍게 이야기 되는 것들이 그 당사자에게는 드러내지 못하는 혹은 그 안에 내재된 엄청난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혐오와 차별은 대중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조장되고, SNS를 통해서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구조적으로 다지고 시민성을 기르지 않는다면 혐오의 확산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혐오의 기저에는 어떤 사회적 심리가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억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타인을 공격하지 않으면, 나의 것을 타인에게 뺏기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면, 내가 그만큼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다수는 소수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고 혐오하고 차별합니다.

혐오의 확산 조건

경제적 맥락

세계적으로 악화된 불평등 구조, 높은 실업률, 허탈감/시기/열등감/불만/우울/ 공격 성향, 저성장시대의 취약한 개인(cf. 1997 이후 한국의 불평등)

선동가 또는 대중매체의 등장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과학자/전문가 등장(cf. 일베의팩트주의)

정치적 맥락

권위주의 성향의 지도자 출현, 극단적 포퓰리즘, 불안정한 정부 구성, 취약한 민주주의, 민주 세력의 지리멸렬 등

사회문화적 배경

막연한 편견과 거부감, 집단 정체성이 강한 문화, 획일주의 문화, 민족 중심주의 전통, 동화주의적 문화, 외집단을 배제하는 내집단 중심 담론(cf.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집단 무의식

7-17세기 이슬람의 유럽 침입, 위대한 미국 이데올로기, 레드 콤플렉스 (cf. 한국: 반북이데올로기)

+

한국의 현실

경제적 불안, 불안과 공포의 정치,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책임 전가의 논리 → 혐오의 확산

국민 10명 중 9명 “나도 언제든 혐오대상 될 수 있다 느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91.1%는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누군가를 혐오하는 시선 행위가 결국은 (나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게티이미지 제공

혐오와 관련해서는 예외가 없으며 나 또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방식과 태도, 행위와 실천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청소년 문제도 심각합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심각한 혐오가 드러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극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감내하거나 극복할 문제가 아닙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보이지 않는 특권 #민감하게 알아차리기
#존엄성 #평등 #시민성

차별을 생산하는 것 중 하나는 고정관념, 규범, 관습, 전통입니다. 혐오나 차별하는 말을 나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차별이라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대상에 대해 공격적인 혐오 발언이나 강한 반감을 꼭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나의 시선, 태도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들을 포함한다면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방임하고 방관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죠.

차별을 생산하는 혐오의 메커니즘: 스테리오 타입

김치녀

과소비, 분수, 소비지향, 허영, 세속·물질적, 샤넬, 구찌, 명품백, 스타벅스, 성형, 청담동 머느리룩, 남성 의존, 남자 무시, 어장관리, 데이트 비용, 꽃땀, 먹튀, 선물, 대접, 경제적 부담, 잘난 척, 이기주의, 도도.

이주민

시골, 노총각, 매매혼, 사기 결혼, 어린 여자, 가난, 돈 벌러 옴, 투박, 목 늘어남, 셔츠, 촌스러움, 몸빼바지, 까만 피부, 까무잡잡, 후줄근, 꺼려짐, 싹 티, 악취, 향신료, 회칼, 범죄자, 청년 경찰, 오원춘, 무법자, 동포, 장기매매, 중국, 동남아, 조선족, 이슬람, 연변 사투리, 시끄럽다.

동성애

존중 강요, 성욕, 똥꼬충, 불쾌, 눈총, 중성적, 대머리, 위험.

맘충

기저귀, 김밥, 쏟음, 흘림, 고급유모차/커피숍, 뷔페, 브런치, 비상식, 억셈, 적반하장, 민폐, 뛰어다니다, 막장, 무개념, 새치기, 시끄럽다. 진상, 내로남불, 남편 욕, 시댁 욕, 기저귀 가방, 레깅스, 박시한원피스, 안 꾸밈, 묶은 머리, 허름, 아줌마, 공공장소, 꼴 보기 싫음, 극혐, 엉망, 부들부들.

청소년 10명 중 7명 “혐오 표현 경험 있다”



혐오 표현을 경험한 적 있는 청소년 응답자의 82.9%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커뮤니티, 유튜브, 게임 등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했다고 응답했다.

중앙일보 이미지 제공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특권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권이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성소수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딘가로 이동하고 약속 시간에 어디를 가서 만나고 시간에 맞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상이지만 이동권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내가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것, 나의 시선, 태도를 좀 더 민감하게 바라보고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차별 받지 않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타인의 것을 박탈할 권리에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존엄성을 존중 받고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누려야 합니다.

혐오의 평범성

선량한차별주의자
 사유하고 판단하지 않은 시민
 -목인, 방임, 방치, 방관

민주시민은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에 대한 온도를 1도씩 올려간다면, 우리 아이들도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천 사례 발표

관심의 눈

- 권송자
(사)한국여성의전화 이사 / '교육과시민' 강사



[실천 사례 발표 :관심의 눈/권송자]

#무관심으로 키우는 폭력 #관심으로 지키는 안전

오늘은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무관심 속에서 강화됩니다.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면 폭력의 가해자는 폭력을 멈추고 조심하게 돼요. 관심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관심과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의 운동을 하다 보니 저의 눈에도 폭력이 늘 발견됩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시간에 집에 가고 있었는데 서터문이 내려져 있는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가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여성폭력과 관련된 일을 현장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도와드릴게요.”라고 말을 걸었어요.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가정폭력으로 집 밖으로 도망을 나왔던 분이었어요. 아이가 있어서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근처에서 울고 계셨던 거죠. 저는 112에 전화해서 상황에 대해 신고하면서, 이 신고 결과가 잘 처리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찰서 측에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안에도 피해자인 여성 분이 신고를 하기는 했지만, 경찰이 늘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거예요. 피해자 분께는 이후에도 가정폭력이 또 일어난다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하도록 했고, 연락을 받은 저는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도왔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 피해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여성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한번은, 버스 안에서 한 남자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일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50대 중후반의 남성이 앞 좌석의 여성을 어깨너머로 성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추행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는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돕고 저지해야 합니다. 저는 기사와 승객의 양해를 구하고 버스를 정차시킨 후,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까지 가서 신고와 목격자 진술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피해 학생의 행실 탓하여 2차 가해를 하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단단히 시켰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성추행을 발견하고 저지하는 남성,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남성,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려주는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 부모의 태도 등 다양한 모습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몰카범 딱 걸렸어" 일주일 새 '두 명' 잡은 21살 청년

김씨, 정류장서 몰카 눈치채고 버스 탑승

김00 (몰카 혐의자 제압)

그 사람이 여성 옆에 앉아서 카메라를 세워서 찍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의심하고 보고 있었는데, (버스에 타서) 휴대전화 좀 보여 달라 했는데 힘을 주면서 저항을 (하더라고요).

2020.6.30 KBS뉴스

KBS뉴스 이미지 제공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폭력, 성폭력, 성추행 등은 인권 침해이자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을 목격했을 때 관심과 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둘째, 행위자(가해자)가 한 행동이 폭력임을 알도록 인지 시켜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변화와 실천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인권 침해 피해자를 만나면 항상 그들은 스스로 자책을 해요. 피해자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는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알아라 - 인권침해는 범죄임을
말하라 - 폭력 상황을
찾아라 - 도움을 줄 곳을

오늘이 공론장을 통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우리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점검해보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공론장 회의록

- 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인가?
- 일상에서 할 수 있는 101가지 실천

1조. 그것이 알고 싶다. 성차별! 성평등!

진행 : 권송자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리 내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조 : 그것이 알고 싶다. 성차별! 성평등! - 한주연, 권송자, 이종화, 박재희, 김지연 (좌측부터)>

하지만 약자는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기에, 우리에게서는 작은 목소리도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손을 뻗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고, 곁에 머물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함을 맞닥뜨렸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모를 때는 내가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해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또 차별을 하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조 토론 결과 발표 - 그것이 알고싶다. 성차별! 성평등!>

내가 경험한 성차별

“큰딸로 태어난 나의 출생신고를 하러 간 아버지가
동사무소 앞에 큰 소나무를 보시고,
아들 동생을 낳으라고 이름을 ‘송자’라고 지었다.
집에서는 다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출석부를 보고서야
내 이름이 송자인 걸 알게 되었다.
우리 엄마도 그제서야 내 이름이 송자로 등록된 걸 알게 되셨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목이랑 팔 등을 만지고,
대학교에 가서는 남자 교수님들이 당신들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앉히곤 했다.
당시에는 얼어붙어서 저항할 수도 없었다.
동기간에는 성추행을 어느 정도 거부할 수 있지만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가 어렵다.
주변 사람들도 말리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이라도 나서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다.”

“나는 차별당한 경험이 아주 많다. 오늘도 차별을 당했다.
남편 밥 차려주는 일부러 손주 씻기고 밥 차려주고
유치원 보내는 일까지 나 혼자 수많은 일을 한다.
남편도 손주의 할아버지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상이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 성차별경험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추위도 타지 않아야 한다’라고 쉽게 이야기해왔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학습된 것 같다.”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양한 성 소수자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성별을 남, 녀로만 이분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차별하는 줄 인식하지 못하고 차별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였던 거다.”

“결혼이주여성도 우리나라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남성은
배우자의 언어를 배울 생각은 하지 못하고
본인의 언어인 한국어와 제사와 같은
한국의 문화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이 성장과정에서 아들, 딸을 구분 지으며 차별하지는 않으셨지만
말이가 부모를 대신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도 모르게 엄마처럼 살고 있다.
남편을, 아이를 돌보고, 시댁에서 일하면서
내 존재는 지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힘들었는데
힘들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희생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다.
겉으로 드러나거나 누군가 언어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성차별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동안은 잘 인식하지 못했다.”

일상에서 인권 감수성 높이기

01. 주변에서 아동 학대,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기
02. 성 역할을 바꿔 생각해보기
03. 차별과 부당함을 눈치챘을 때, 주변과 공유하고 연대하기
04. 맨박스에서 벗어나기
05. 아이들 교육, 성공, 출세, 부동산 얘기에서 벗어나기
06. 인권 문제, 폭력 문제에 관심 갖고 대화 나누기
07. 인권 침해 관련 법이 만들어지도록 목소리 내기
08.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문화 물려주기
09. 가정에서의 성 평등 문화 고민해보기
10. 지역 축제 때 성 평등 부스 운영하기
11. 양성평등주간행사 모니터링 하기
12. 인식 변화에 대해 공감하고 주변에 촉구하기
13. 이슈에 대해 목소리 한데 모으기
14. 실천, 실천, 실천하기



[성별 분임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 '워드클라우드'로 데이터 이미지화함]

2조. 라떼를 좋아하세요?

진행 : 오민영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

“어린 학생이 너무 대견하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법 잘한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흔히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이 문장 안에는 ‘어린 사람은 원래 미숙하거나 서툴다.’라는 고정관념과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차별 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2조: “라떼를 좋아하세요?” - 김현욱, 이순화, 오민영, 남궁정 (좌측부터)>

우리는 처음 만난 관계에서도 서로 나이를 묻고, 그에 따라 호칭을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이에 따른 호칭으로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로 인해 생겨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일상에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나이와 관련된 언어를 표현을 바꿔보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이나 환경에서 나이 차별을 의제로 한 공론의 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조: 토론 결과 발표 - “라떼를 좋아하세요?”〉

내가 경험한 나이 차별

“예비 NPO 활동가 교육이라는 말을 보고
‘왜 젊은 활동가는 예비활동가라고 불리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젊은 층에는 왜 예비라는 말을 붙일까?
회사, 공직사회든 다른 사회조직처럼
시민단체에서도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

“청년은 사회 경험도 없고, 판단력도 미숙하고,
어른들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진다.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시각이 느껴질 때가 있다.”

“나으로 인해 차별하고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린이도 당연히 어른이 잘 인도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거다.”

“‘라떼는 말이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젊은 사람들은
기성세대가 하는 조언이나 관심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

“세대 간 갈등, 서로 간 입장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은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야기와 상황의 맥락에 상관없이
과거 이야기 ‘라떼는 말이야’하고, 이래라저래라 충고하면
다른 세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것.”

“나이에 든 사람에게 “젊어 보이세요..”라고 하는 말이
나이 늙에 대한 비하의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열등한 것 안 좋은 것 같고,
젊은 것은 우월하다는 것으로 여겨져
이것이 칭찬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청소년들도 인권과 사회 이슈 참정권에도 관심이 많다.
‘왜 어른들은 완성된 존재이고 청소년은 미완성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질문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나이에 참 대견하다’, ‘어린데도 너는 훌륭하다.’라는 말은
어린 사람이 미숙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이다.
 어른들이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차별적 발언이라는 인식을 모두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또는 소그룹에서 누군가를 새로 만났을 때 나이를 먼저 묻고,
서열과 호칭을 정리하는 문화가 있다.
 언니, 오빠, 형, 동생이라는 가족 관계 안의 호칭이
 외부에서도 연령에 따라 사용된다.
 그리고 ‘님’과 같은 존칭이나 존댓말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나이를 기준으로 한 호칭이
 친근하고 돈독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호칭은 관계를 위계적으로 만들어
 정확히 따져야 할 일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좋은 결정을 할 때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 또래나 어린 친구들을 보면,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말봐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곤 했는데
 앞으로는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상에서 인권 감수성 높이기

01. 연령을 상하로 인식하지 말고 차이로 인식하기
02. 처음 만났을 때 나이 묻지 않기
03.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 사용하기
04. 연령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고정관념 버리기
05. '예비'와 '청년'을 동의어로 생각하지 않기
06.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가 자격에서 연령 제한 두지 않기
07. 각 연령대에서 느낄 수 있는 차별을 이해하기
08.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09. 가능성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
10. 아동을 가르쳐야할 대상으로 보지 않기
11. 아동을 차별하지 않고, 아동 인권을 존중하기
12. 연령에 따른 비하 표현 사용하지 않기
13. 연령에 따른 칭찬 하지 않기
14. 기회 부여에 있어서 연령 제한 두지 않기
15. 나이와 경력에 따른 위계가 없는 평등한 조직 문화 만들기
16. 서로 간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 일상의 공론장 만들기

3조.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편견

진행 : 오영숙

#이제는 분자가족 시대

우리는 현재 가족의 유형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반려동물가족, 성소수자가족, 미혼모가족, 아이가 없는 가족, (혈연이 아닌, 비혼자들의) 동거가족, 장애인가족 등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결합한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3조: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편견” - 최명숙, 이희진, 박주영, 오영숙, 김주현 (좌측부터)〉

우리에게 조금 낯선 가족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유형의 가족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 캠페인이나 SNS 챌린지를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소통을 하는 자리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가족들을 직접 경험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양한 조합으로 원소들이 결합해 하나의 분자가 되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된 모든 분자 가족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3조 토론 결과 발표 -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편견”〉

#내가 경험한 가족 차별

“예전에 비해 가족의 형태나 구성원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사회적 제도들이 잘 갖춰져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은 핵가족, 소위 정상가족 위주로 여전히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나 인정은 어느정도 생겨났는데

성소수자 가족, 반려동물 가족, 미혼 가족은 아직 낯설어 하는 사람이 많다.”

“보호자나 가족이 없는 사람은 병원에서 수술 등을 할 때 동의서를 받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아닌 동거자는 보호자로 인정해주지도 않는다.”

“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소수자에게는 오히려 법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법으로 차별받는 경우도 많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어렵다”

“기성세대로서 이런자리를 통해 알게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인식변화가 되어가리라고 생각한다.”

“저도 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차별주의자예요. 알기 전에 한 잘못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차별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상에서 인권 감수성 높이기

01. 우리 주변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02. 공익광고나 SNS 챌린지 등을 통해 다양성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하기
03. 특정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 버리기
04. 다양한 가족을 차별하는 제도 개선하기
05.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가족 분임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 '워드클라우드'로 데이터 이미지화함]

4조. 일터에서 인권 온도 올리기

진행 : 지혜옥

#인권 교육 무덤에서 요람까지

갑을관계가 대체적으로 명확히 나뉘지는 직장의 특성 상, 일터는 가장 인권의 온도를 높이기 힘든 곳인 것 같습니다. 호칭이나 직급 등의 용어를 수평하게 바꾸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직급의 높낮이와 이에 따른 위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많은 인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4조: “일터에서 인권 온도 올리기” - 한재춘, 지혜옥, 김은숙, 정재숙 (좌측부터)>

직장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바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과 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 등의 문제도 주변에서 지켜보는 동료의 눈과 목소리가 있다면 방지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SNS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규율을 엄격하게 강조해 후배를 괴롭히는 ‘태움’ 문화, 직장에서 여성의 능력을 한계짓는 ‘유리 천장’도 없어야 합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무례한 호칭을 쓰는 일도 지양해야 한다고 함께 이야기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나부터 인권감수성을 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입니다.



〈4조 토론 결과 발표 - “일터에서 인권 온도 올리기”〉

#내가 경험한 일터에서의 차별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여자이고,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한다.
알바생은 손님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종종 겪지만
계속 일을 해야하니 싫다고 표현하기 힘들다.
성추행을 당한 직원이 며칠 후 올면서 이야기 해
cctv로 확인하니 지인이어서 찾아가 사실인지 확인했다.
술을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길래
cctv를 캡쳐해서 신고한다고 이야기 했더니,
사과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

“골프를 치러 갔는데 캐디에게 반말하는 친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를 하니,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했다.
일상 속에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할지 고민이 된다.
갈등이 생기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쿠션 언어를 생각하게 된다.”

“직장에서 아이 학교 문제나 병 간호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당신만 애 키우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여자가 어떻게 임원을 하느냐’, ‘여자라서 안된다.’
‘왜 여자는 다른 직장동료에게 피해를 주냐’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여자여서 뭔가 더 입증을 하고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 되는 것이
힘들다.”

“상사의 갑질,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적이 많다.
저의 업무가 아닌데 일을 시킨다던지, 회식 자리를 요구한다던지...
성추행, 왕따, 태움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장애인인데, 업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딜레마를 느낀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몸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이 틀렸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거부를 하기가 힘들다.”

“회사에 다닐 때는 회식 문화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술을 먹어야 했다. 퇴직 후 10년 뒤에 회사에 간적이 있는데 과도하게 술을 먹는 회식문화가 야만적으로 느껴졌다. 접대문화나 회식문화를 거부하고 싶을 때는 그냥 퇴사라는 개인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60대 이상의 남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시간 이후 밤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하면서 ‘잊어버릴까봐 말해요. 신경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상사에게 우리 근무시간을 알리고 ‘지금은 근무시간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민원처리 때문에 북카페에 온 공무원들이 차를 마시고 계산하지 않고 갔다. 차를 파는 장소인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차를 대접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공무원이 자각하지 못하는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인권 감수성 높이기

01. 문제를 인식하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말하기
02. 조직에서 위계가 없는 수평한 호칭 사용하기
03.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버리기
04.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체계적인 인권교육 받기

공론장 결의사항

1. 분임별 실천과제 도출

주제	소주제	실천과제
성별	그것이 알고 싶다 성차별!성평등!	성평등 정책, 양성평등 활동 모니터링 평등거버넌스/ 법개정요구/폭력신고하기
나이	라떼를 좋아하세요?	호칭 언어 바꾸기/ 일상 속 공론장 열기
가족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편견	sns챌린지/ 당사자가 함께 소통하는 자리 공익광고로 정류장에 홍보
직장	일터에서 인권 온도 올리기	직장 내 명칭 개선/ 전 세대 인권 교육 필요

2. 향후 계획

- 공론장에서 도출한 실천과제에 대해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 모듈별 의제를 지속하기 위한 워킹그룹 의제별 모임을 구성하기로 함



〈서초구 NPO 공론장 참가자 단체 기념 촬영〉

참가자 소감

이번 공론장에서 저는 성별 주제를 택하였습니다. 성별 분야의 인권의 온도 높이는 알아차리기가 시작된 거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보고 자란 환경과 사회가 만든 고정관념 등으로부터 차별을 당해도 차별인지 모르고, 내 자신이 남을 차별해도 내가 차별을 한 건지도 인식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보다 제 경험의 토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토론에서 서로의 진솔한 경험을 쏟아내고, 자아성찰하면서 일 상에서 인권의 온도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마구마구 쏟아 냈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계속 어려울 거 같은 일상에서 인권 온도 차이 줄이기지만... 일을 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집이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미래에 결혼을 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등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권에 안주하지 말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배제된 사람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온도 차이 줄이기는 지속해서 생각하고 인식해야겠습니다.

- 박재희(청년활동가)

지역사회의 변화는 한번 의제를 논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시작될때까지 꾸준히 그 의제를 발전시켜 실현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의제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실천과제의 실천을 위한 액션플랜을 심화할 수 있는 의제로 지속하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박주영(소담대표)

민민협력기반 마련과 민관협치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즈음, 동남권의 든든한 울타리 NPO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서초워킹그룹은 조금 다른 걸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각 단체의 미션은 1+1으로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 의제를 찾고 공론화하는 공동의 과업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롭게 등장한 시민단체와 지역기반 활동을 시작하는 선배활동가들이 적극 협력하여 서초구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한 공론장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동남권NPO센터 서초워킹그룹에 참석하는 15개 단체, 17명이 3개월간 함께 지역의 의제를 찾고 연결하여 공동의 의제를 선정하는 기나긴 논의와 공론장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회의까지 총 6회에 걸친 기나긴 논의를 함께 준비하고 수행한 것입니다.

7월 공론장 이후 다양한 실천과제별 의제모임을 이어서 진행한 결과, 동남권NPO센터 서초워킹그룹은 5개의 의제별 모임으로 각각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5개의 의제모임은 성평등, 기후위기대응, 미디어인권, 평등언어찾기, 인권인증 프로젝트이며 총 20개 단체(모임) 22명의 활동가가 관심 의제별 중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5개의 의제모임은 의제별 실천과제를 논의하여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샵과 서초기후학교를 통한 교육과 비상행동에 참여를 준비하고, 미디어 모니터를 위한 모니터링단 교육과 지속적인 활동기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차별언어를 평등언어로 바꾸고 이를 통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굿즈제작, 인권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준비 중입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큰 실천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즐겁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과정이길 소망합니다.

- 조진영(서초PM)

모두의 밥

2020.09.17

NPO공론장 기록 송파구

공론장 의제 선정 과정

-워킹그룹 회의

송파구 공론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파구 워킹그룹은 5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송파구 워킹그룹 1차회의(4/24)에는 송파지역 NPO 활동가 13명이 참가하였다. 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우선 비영리 공익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2차회의(5/27)에서 송파워킹그룹 교육(강의)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2번째 회의(5/27)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비영리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박영선 박사를 모시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토대로 송파워킹그룹은 지역사회 NPO현황조사와 송파지역 공론장 의제를 정하기 위한 워킹그룹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차회의(6/24)는 예정대로 공론장 의제를 정하기 위한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워킹그룹 내에서 공론장 의제에 대한 제안을 요청드렸고, 이렇게 모여진 먹거리기본권, 길고양이 케어, 주민자치, 성내천 복원 등의 주제에 대해 대표제안자의 발표를 들었다. 이후 공익성, 시급성, 지역성, 선호도(개인 또는 단체)의 기준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고, 투표 결과 먹거리 기본권을 송파구 공론장 의제로 결정하였다.

4차회의(7/22)에서는 공론장 의제인 ‘먹거리기본권’을 어떻게 논의할지에 대한 기초발제와 공론장 운영 방법을 논의한 후 8월20일(목)에 공론장을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한 차례 공론장을 연기하게 되었고, 공론장을 대신하여 송파워킹그룹 5차회의(8/20)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9월17일(목) 오후2시 온라인(Zoom) 공론장으로 운영하기로 정하였다.

공론장 개요

모두의 밥

2020.9.17 (목) 14:00~16:00
 행복누리사회적협동조합 플랜터스 테이블
 (송파구 오금로 46길 41, 5층)

시간	내용	참여자
14:00 ~ 14:05	진행 안내	사회 : 플랜터스 박종현
14:05 ~ 14:10	여는 말	동남권NPO지원센터 위정희 센터장
14:10 ~ 14:30	발제1. 흙밥보고서	시사인 변진경 기자
14:30 ~ 14:50	발제2. 먹거리기본권	먹거리정의센터 김소연 박사
14:50 ~ 15:10	발제3. 서대문구 먹거리조례 사례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 탁현배 센터장
15:10 ~ 15:20	쉬는시간	(구글 질문지 수집)
15:20 ~ 15:50	질의응답(질문지& 워킹그룹)	워킹그룹: 박지선, 최다빈, 이희승 외 (질의 사전준비 팀)
15:50 ~ 16:00	마무리	송파PM 이승희 (사전설문지, 질문지 공유)

송파구 NPO공론장의 의의

여는 말

동남권 NPO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공론장이 현재 자치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송파에서는 정말 멋있고 필요하고 간절한 주제, '모두의 밥'이라는 주제로 공론장을 진행합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의제가 숨어있는, 밥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위정희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장)

송파구 NPO공론장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기조 발제

1. 모두의 밥 _ '흙밥 보고서'를 중심으로

-변진경
시사in 기자



[기조 발제: 모두의 밥 - '흙밥 보고서'를 중심으로/ 변진경]

주간지 시사in의 탐사기획팀 기자 변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겠지만, 인천의 한 가정에서 8살, 10살 두 형제가 아이들끼리 집에서 밥을 지어 먹다가 화재가 나서 큰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원래 같으면 학교에 갔을 날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집에 있었고 보호자 없이 아이들끼리 끼니를 챙겨 먹으려다가 변을 당한 건데요, 밥 이야기를 한다는 게 한가한 소리가 아니라서 우리가 모두 알게 되었잖아요. 좀 숙연한 마음으로 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흡밥 보고서라는 보도를 2016년에 했었습니다. 청년의 빈곤 문제 가운데 주거, 빚, 학자금 대출 등의 문제들은 조금씩 언급이 되었는데 청년들의 식사, 건강에 대한 공론화는 이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청년기라는 가장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에 쓰레기 같은 밥을 먹으면서 건강을 해치고 그것이 계층별로 더 고착화되고 있는 현상을 여러 가지 사례들로 보도를 했었고 반향이 컸습니다. 청년들은 ‘내 이야기이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반응이었고 기성세대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혹시 일부만의 사례가 아닌가?’, ‘과장이 아닌가?’ 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의 연장 선상으로 아동 흡밥, 아동들의 식사와 건강에 관한 기사를 코로나 직전에 보도했었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코로나 시대의 밥’입니다.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무료급식소들이 방역을 이유로 다 문을 닫았는데,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밥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이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흡밥

1) 청년들이 처한 밥의 현실

이 취재의 가장 큰 계기가 구의역 사고였습니다. 스크린 도어를 혼자 고치다가 유명을 달리한 20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었는데 그분의 가방에서 나온 여러 유품 중 저는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누구나 컵라면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 식일 수 있지만, 이걸 항상 가방에 젓가락과 함께 갖고 다닌다는 것은 청년들의 밥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밥을 먹을지 모른다는 삶의 불확실성이요. 그래서 실제 청년들이 어떤 밥을 먹고 있는지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밥에 대해 이처럼 말을 합니다.

배고픈 청년들

"밥 한 손가락에 굶은소금 한 개씩 넣어 먹었어요."

"자취할 때 물 끓여서 다시다만 넣어 먹은 적 있어요."

"편의점 알바할 때 유통기한 지난 폐기 삼각김밥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너무 배가 고파 녹이지도 않은 채 부셔서 먹었어요."

"한식당에서 알바할때 손님이 남기고 간 육회를 먹었는데 너무 꿀맛이어서 슬펐어요."

"웨딩홀 혼주 음식은 질이 좋아서 먹다 남은 것도 맛나요."

엄청난 극빈층이나 노숙자인 청년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청년들, 예쁘고 잘생기고 활기차고 멀쩡하게 입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같은 청년들인데 먹는 것만은 굉장히 열악하게 먹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친구가 남긴 식판을 한 번 더 리필하는 방식으로 밥을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밥값이나 커피값이 무서워서 조별 과제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대학생도 있었고요. 많은 반론이 들어오는 게 '청년들한테까지 왜 밥을 지원해줘야 하느냐', '청년들이 자기가 벌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건데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 밥을 못 먹습니다.

2) 청년 흡밥 유발자들

등록금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보면, 일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등록금이 한 해 1,000만 원에 육박 하구요, 모두들 학자금 대출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빛이 있으면 청년들은 맛있는 걸 사 먹을 용기가 안 납니다.

노동

돈을 벌어서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밥 먹을 시간을 안 줍니다. 밥에 대해 신경을 쓰는 고용주가 없습니다.

주거

주거환경도 굉장히 큰 몫을 하는데요. 대부분 밥을 지어먹을 공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지 말고 카페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조심을 해야 하는 게 맞긴 한데 이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라는 말이 가혹하진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있긴 있었어요. 대학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썬 밥을 제공하거나. 지자체에서 건강 검진 정책을 시행하거나 청년들 스스로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먹거리를 신경 쓰는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이것들이 잘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예산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집밥이란 무엇인가?

취재하다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두 부류였습니다.

“집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편의점 음식 자극적인 음식 먹으니까
몸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집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한식을 뜻하거나 칠첩반
상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정성스러운 음식을 나누는
것을 집밥이라고 할 때, 그런 경험을 어릴 적부터 해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
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은 식사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요? 그런 연결점에서 아동 흠밥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 흠밥

1) 결식아동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

처음에는 결식아동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지원대상 수를 시간순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듯합니다.
이 통계수치가 202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많이 낮아져 있을 것입
니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에서 밥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한 아이들의 수가
아니라 발견된 아이들의 수입입니다. 지자체나 학교 같은 사회적 눈들에 의해
서 발견되어 지원받고 있는 수인데, 올해는 여러 비대면 활동으로 발견될
기회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결식아동 수가 줄 것이지만 실
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닐 겁니다.

21세기 결식아동은 밥을 굶어 배가 고플 아이가 아니라 속이 더부룩한 아이일 수 있습니다. 결식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너무 가난해서 흠밥을 먹기도 하지만 적당히 버는 부모 밑에서도 흠밥을 먹습니다. 어떤 아이가 굶고 있는가로 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포괄하지 못하고, 어떤 아이들이 ‘어떤 밥’을 먹고 있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아동 흠밥은...

더 이상 결식(缺食)의 형태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질 낮은 음식, 혼자, 불규칙하게, 허겁지겁 입안에 욱여넣을지라도 일단은 먹기 때문에 결식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는 아이들이 많다.

아동 흠밥의 양태는 다양하고 복잡하다.

어떤 아이는 굶어서 흠밥이지만, 어떤 아이는 너무 먹어서 흠밥이다.

어느 아이는 너무 가난해서 흠밥을 먹지만, 어느 아이는 적당히 버는 부모 밑에서도 흠밥을 먹는다. 늘 배고픈 흠밥 아동도 있지만, 늘 더부룩한 흠밥 아동도 있다.

기존 ‘결식 렌즈’로는 아이들의 식사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굶는 아이들’에 더해 ‘먹는 아이들’도 자세히 바라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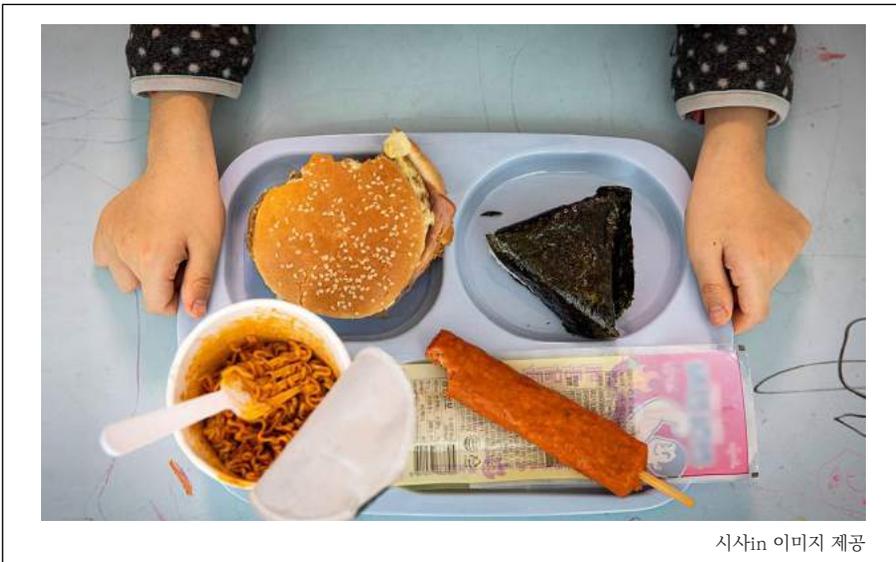
‘누가 못먹고 있는가?’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어 살펴보면, 형편없는 아동 흠밥이 사회 도처에 널려있다.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먹는가

계층별로 밥을 굶고 있는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 고기나 생선, 신선한 과일. 다양한 식품, 이러한 것들이 계층별로 확 떨어집니다. 특히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가난할수록 못 먹어요. 어떤 음식을 많이 사서 먹는가 보면 음료수가 많아요. 라면 구입은 코드로 막혀 있어 급식 카드로 살 수 없어요. 풀어주면 너무 라면만 많이 먹을 것 같고 막아놓으면 라면류로 분류가 되어 있는 국밥류도 코드상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네요.

지자체에서 아이들에게 급식 카드를 나눠주고 농어촌에서는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급식 카드를 들고 향하는 곳은 편의점입니다. 왜 아이들이 편의점을 이용할까요? 편의점은 가서 굶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가면 먼저 사장님에게 “꿈나무 카드로 먹겠습니다.” 고지를 하고 앉아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재를 할 때 일반 신용카드와 다른 단말기를 꺼내서 전원을 켜고 긁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급한다고도 해요.



시사in 이미지 제공

음식이 없는 게 아니라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흠뻑을 먹습니다. 흠뻑은 대물림됩니다. 음식의 메뉴뿐 아니라 밥을 먹는 시간, 태도, 환경이 대물림돼요. 밥을 지원해줘도 밥솥이 없고 햇반을 지원해줘도 전자레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흠뻑을 먹는 가정의 문제는 밥이 후순위라는 점입니다. 현금을 지원해주면 공과금과 빚을 갚는 데 먼저 쓰고 밥은 남는 돈으로 먹습니다.

밥 거점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전주시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주자고 새벽에 모여서 밥을 하는 활동도 했었고,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선한 영향력이라고, 아동 급식 카드 아이들을 VIP로 모시는 이런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밥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는 아이들을 향한 좋은 태도를 가진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들 와서 이런 거 먹고 이런 거 해.’라고 조건을 다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은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간과 어른이 필요한 거죠.

끓인 않지만 고기, 생선, 과일은 못 먹는다.

〈그림 2〉 식생활 영역의 박탈 비율 (단위:%)

각 항목에 대해 “아니요”라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시사in 이미지 제공

2) 가난한 아이들만 문제일까?

대치동에서 아이들 밥시간을 20~30분밖에 주지 않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원가의 아이들을 취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취재를 실제 해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 밥보다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학원가 아이들은 밤 10시가 식사 시간입니다. 2~3시쯤 학원에 들어가면 10시에 나옵니다. 불닭볶음면, 버블티, 닭강정, 햄버거 등을 먹습니다. 밥을 먹느니 차라리 쪽잠을 자고 숙제하고, 급식 줄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밥을 먹지 않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위염이 생겨서 옅드려서 자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취재를 하다 보니 저소득 결식아동들이 훨씬 밥을 잘 먹고 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신경을 써주는 복지 체제가 있거든요. 대치동 키즈들에게는 밥에 대해 신경을 써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나 영양제 홍삼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고 받지만 끼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습니다.



시사in 이미지 제공

결식아동 흠밥과 대치동 길밥의 평준화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식아동 흠밥과 대치동 길밥이 슬프게도 평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집이나 없는 집이나 평등하게 편의점 참치 1+1로 때웁니다. 손에 뭍 쥐고 있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식아동 꿈나무 카드냐 엄마 카드냐.

아동 흠밥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이유가 이때 음식에 대한 관점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을 잘 키워야 청년 흠밥도 사라지고 노년 흠밥도 사라집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자기를 잘 돌보는 법을 아는 아이들이 남의 밥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남이 잘 먹고 잘사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사를 단순히 필요한 열량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은 아이들의 밥에 대해 얘기하면 계속 그 책임과 의무가 여성에게 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돌봄 노동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만 아이의 밥을 챙겨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동 흠밥이 사라져야 청년 흠밥도 노인 흠밥도 사라진다.

내 밥상의 소중함을 알고 자란 아이가 남의 밥상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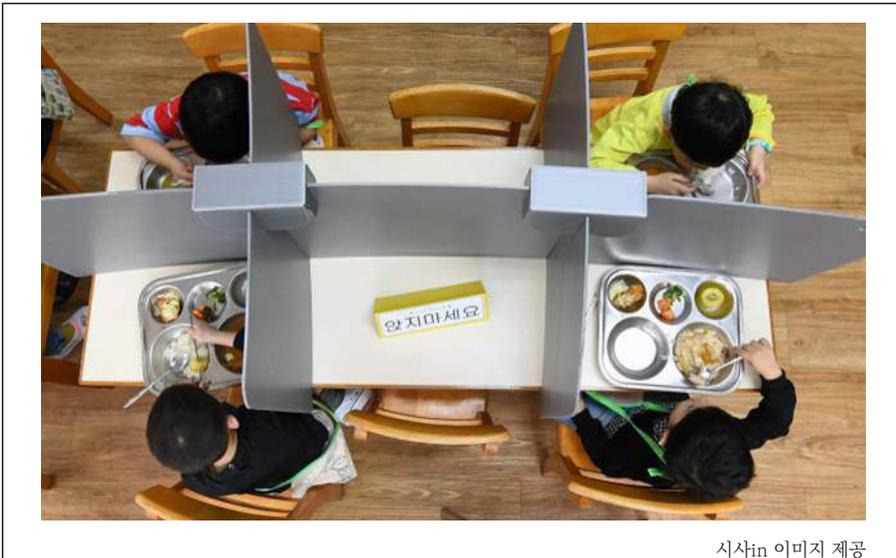
아이들에게 식사란 '필요한 열량을 채우는 행위'가 아닌
'나와 타인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여유'로 가르쳐야 한다.

+여성과 아동흠밥

#재난과 밥

요즘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재난 시대의 밥입니다. 최근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초중고 아이들의 생활, 학습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 진행했습니다.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점심을 먹느냐고 물었을 때 40~50%는 먹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이걸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원래는 학교를 다니면서 모두가 먹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절반이 먹지 못합니다. 가정경제 형편별로 살펴보면 가난할수록 먹지 못해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등교일에 아이들에게 제공된 간편 급식과 학교 급식 시간의 불투명 차단막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식사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최근에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배급되었잖아요. 저는 이러한 시도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합니다.



시사in 이미지 제공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밥

밥을 해 먹기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에만 있으라고 하는 건 굶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배달 음식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고립된 노인, 아동, 장애인들의 밥, 여성들이 돌봄 노동에 시달리며 하는 밥 등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고민해야 할 밥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교육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 재난 시대의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자리인데, 제가 ‘아이들 급식이 멈춰져 있는데 새로운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위 행정관계자 분이 지자체에서 급식 카드 나눠주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단순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잘 성장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마음의 허기도 채우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밥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NPO지원센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제자 탁현배, 김소연, 변진경(좌측부터)〉

2.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보장, 먹거리 운동_ 서울시 사례

- 김소연
경희대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정책위원장



[기조 발제: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보장, 먹거리 운동 _ 서울시 사례 / 김소연]

변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아동, 청년의 흡밥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때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학술논의들, 개념들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발제의 제목은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보장, 먹거리 운동>입니다.

#먹거리 기본권

모든 사람, 어느 나라에 있던 어떤 조건에 있던 모든 사람은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먹거리 기본권입니다. 먹거리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선언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진 않았지만 선언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지만 그걸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역사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먹거리기본권 Right to Food



- 세계인권선언(1948)
- 국제인권규약(1966)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 및 복지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심신장애, 배우자의 사망, 노령, 그 밖의 기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한 생활불능의 경우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항

- 인권으로써 먹거리보장 최초 선언
-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보장
- 선언적 규정으로 강제성 부재

먹거리 기본권 해석 변화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라는 곳에서 먹거리 기본권에 대해 해석했습니다. 1976년에는 '모든 사람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굶주림은 양적인 굶주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1999년도에 가면 먹거리 앞에 '적절한'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는 점이 의미가 큼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단독으로, 또는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적절한 먹거리 및 그것의 확보 수단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99년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명시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기본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가용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이 3대 요소고요, 또한 먹거리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이라고 해서 자기 나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먹거리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인권의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의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정도 있고, 먹거리체계의 제도적 메커니즘 마련도 이야기합니다. 여성의 권리 보호 문제도 언급해요. 잘 사는 나라에서는 먹거리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먹거리 기본권에 훨씬 취약한 상태입니다. 식량을 원조했을 때 현지 주민들이 먹거리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들은 적절한 먹거리 기본권의 실현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먹거리기본권 해석 변화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CESCR)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1976 굶주림 자유로운 권리

• 1999 적절한 먹거리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단독으로, 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적절한 먹거리 및 그것의 확보 수단에 대한 물리적 / 경제적 접근성을 언제든 지 가질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 2001 존엄성 있는 삶의 영위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전통에 상응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하고 정규적인, 영구적으로 방해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불안감 없이 존엄성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

• 적절한 먹거리기본권

- 먹거리의 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제 7 조)
- 먹거리기본권의 존중, 보호, 충족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 (15 조)
- 특정한 문화화의 부합성,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 여타 인권들과 충돌하지 않는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 (8 조)
- 기업 영리행위 규정 (20 조)
- 먹거리 체계의 제도적 매커니즘의 마련 (25 조)
- 여성권리보호 (26 조)
- 식량원조시 현지주민의 먹거리자급상태 회복 (39 조) 등

2001년에 가면 더 멋진 해석이 나옵니다. 양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한다거나 건강하게 잘 살게 하는 것 이상으로 ‘먹거리는 존엄한 삶을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넣고 있거든요.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계속 변해왔습니다. 이걸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현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걸 먹거리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먹거리 보장

먹거리 보장은 먹거리 기본권을 국제적, 국가적으로 아니면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인지를 목표이자 실현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는 식량안보라는 용어로 번역이 되고 국내에서는 보통 먹거리 보장이라고 번역됩니다. 의미는 food security로 똑같은 차원이예요. 이것도 먹거리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계속 변해왔어요.

1973년에 처음으로 국제회의에서 먹거리 보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70년대에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서 양이 부족하니까 농업생산량을 많이 늘리자고 했어요. 1980년대는 사람들이 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장 확대 논리가 많이 생겨요. 자유시장 확대, 무역이죠. 90년대 가서는 질적인 접근성 이런 흐름을 통해서 1996년에 세계 식량회의에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먹거리 보장을 ‘모든 사람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그들의 기호를 만족하게 하는 정도의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접근성을 언제나 가지는 상태’로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까 나라마다 노력을 해야 하겠죠.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실천전략은 기업 먹거리 체계, 세계 먹거리 체계입니다. 주류 전략이죠.

먹거리 보장 담론들

기업 먹거리 체계, 세계 농식품 체계는 화학비료를 써서 생산량을 늘리고 각 지역에서 잘 되는 걸 많이 키워서 무역하자는 겁니다. 산업적 생산증대, 기술개발, 자유시장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녹색혁명이라던가

종자 개량, GMO,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들을 하게 돼요. 이게 주류 패러다임이에요.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비판 담론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비판 담론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권리 담론, 빈곤퇴치 담론 공동체 먹거리 보장 담론이 있습니다.

권리 담론은 국제사회에서 말했던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보장을 앞에 내세우면서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쿠폰 발행을 한다던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정책들이죠. 권리 담론의 문제는 국제협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퇴치 담론이라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먹거리 문제가 빈곤과 결부되어 있으니 먹거리를 주려 하지 말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갑니다. 쿠폰을 발행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적절한 수입을 갖게 하고 사회안전망과 복제체계를 구축하자고 하면서 최저생계비 보장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같은 프로그램이 시작되지요. 빈곤퇴치 담론은 권리 담론에서 한 단계 나아가긴 했지만 국내 차원으로 먹거리 문제를 해석하고 있고 특히 지속가능문제, 환경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성찰이 부족합니다.

최근 나온 공동체 먹거리 보장 담론은 먹거리 기본권을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 지어 보고 있어요. 그냥 먹거리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생산할 능력, 접근할 능력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존엄성 있게 먹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아까 앞선 발제에서 꿈나무 카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카드가 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맞지 않죠. 공동체 먹거리 보장 담론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 부엌이라던가 가난한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는 도시농업이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담론에서의 핵심은 기업 먹거리 체계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의 과정이 기업이나 시장 논리에서 이뤄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기업을 지역 단위에서 만드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운동

먹거리 보장은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운동으로서 먹거리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유기농업, 로컬푸드, 식이요법/건강 먹거리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후 위기를 겪으며 우리의 노력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 속에서 방향 수정이 논의되어 왔습니다.

유기농법이 확산되고 가족농이나 소규모 농민들의 권리 증진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유통이 진출해서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생산자, 엘리트 층에 혜택이 집중되었죠. 이거는 구조적 모순이나 사회 불평등 문제를 보지 않고 농업의 기술적인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만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로컬푸드 운동입니다.

얼굴 있는 관계 시장을 만들자, 서로 보면 신뢰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사회정의도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로 직거래, 농민장터, 꾸러미, 도시농업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냈어요. 문제는 짧은 먹거리 사슬이 바로 사회정의를 구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농업, 농민장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유럽 연구에서 다 백인들이었어요. 저소득구성원들을 위해서 만든 도시농업도 다 교육받은 저소득계층,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정말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여기에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식이요법, 건강먹거리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을 많이 합니다. 개인에게 올바르고 도덕적인 식습관을 강조하는 교육이러는데 의미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의 기본은 모든 사람이 신선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같지는 않거든요. 시간이나 돈이 없어서 못 해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먹거리의 기준도 각 문화적 전통과 사회 조건에 달라요.

서구식 식단과 영양학적 조건에 따라서 식생활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먹거리 기본권을 정말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 사회 불평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기업 먹거리 체계와 먹거리 운동 매트릭스 정리

우리나라 먹거리 운동은 정리된 게 없어서 미국 맥락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여태까지 주류 담론이예요. 먹거리 체계라고 하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까지를 일컫습니다. 개혁주의는 신자유주의 먹거리 체계 안에서 뭔가를 개선하려는 운동입니다. 학교 급식, 식량 원조나 푸드뱅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구요. 구조적 모순에 집중하는 게 진보적 운동, 급진적 운동인데 거기에 속하는 게 공동체 먹거리 보장, 먹거리 정의, 식량 주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먹거리체계와 먹거리운동 매트릭스

구분	기업먹거리체계		먹거리운동 (US맥락)	
	신자유주의	개혁주의	진보적	급진적
담론	식품자본	먹거리보장	공동체먹거리보장 먹거리정의	먹거리정의 먹거리(식량)주권
주요 기관	USDA-농장관리국, 대형 유통자본(월마트·타이슨 등), 대형 자선기금	USDA, 주류공정무역, 일부 슬로우푸드, 먹거리정책협의회, 중간규모 자선단체, 대다수 푸드뱅크, 식량원조기관	다수 CFS조직, 먹거리정책협의회, 청소년·먹거리정의운동, CSA, 슬로우푸드지부, 일부 농장노동자·노동자조직, 대안 공정무역	US먹거리주권연합, 다수 먹거리정의, 권리기반 운동, 일부 CFS조직·슬로우푸드 지부
지향	기업독점, 기술적 수정, 지구적 시장	자기규제기업개발, 원조 확대	공동체역량 강화, 먹거리 기본권, 노동권 등 권리 보장	글로벌기업먹거리체계 독점 해체, 지역기반 먹거리체계, 민주적 통제
모델	과잉생산·단작(유기농포함)·GMOs·농산연료, 기업집중, 무규제 시장과 독점, 산업적 먹거리의 지구적 대량소비	학교급식, 식량원조, 푸드스텝프·푸드뱅크, 의식적 소비주의·식이보건교육, 틈새시장인증(예: 유기농, 공정, 로컬), 농업보조금유지, 기업 자율규제, 수액신용	농생태학적·지역생산, 소규모농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 도시농업, 공동체에 혜택이 가는 생산·가공·소매를 위한 대안 비즈니스모델, 연대경제	농민의 생계보장, 농생태학 가족/지역 사회관리 농업 강화, 토지·물·종자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 식량과 농업 정책의 민주화

자료: Holt-Gimenez and Wang(2011:96-97) 논의를 기반으로 필자 구성.

#서울시 사례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2020먹거리마스터플랜&1기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위원회에서는 제가 참가했었는데,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만들고 먹거리 기본권 조례를 만드는 활동 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2기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구요.

서울시 먹거리 기본권을 선언하고 조례도 만들고 시민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UN 먹거리기본권에 있어서 유엔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세웠죠. 여기에서 목표 2번이 배고픔의 종식, 먹거리 보장, 더 나은 영양 상태 도달과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촉구인데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 배경이 하나 있구요.

또 하나는 2015년도에 세계지속가능 지방정부 협의회 서울 선언을 했습니다. 국가 차원이나 세계 차원에서 먹거리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 나서야 한다는 협의를 한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 대구, 여수가 참여했어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서 도시가 나서야 하는데 먹거리는 삶이기 때문에 주택문제, 여성, 복지, 아동교육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 정책할 때 이걸 연결하면서 해야 한다는 관점을 잡은 것이죠. 서울시가 그 협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도시들에서 먹거리 플랜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식거버너스를 시작으로 먹거리 기본권 선언, 먹거리 마스터 플랜 수립, 먹거리 시민위원회 구성,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서울시 먹거리 시민위원회 1기에는 시장하고 시민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구요. 기획조정위원회 밑에 10개 분과가 있는 형태입니다. 먹거리 마스터플랜 2020은 4가지 핵심가치를 갖고 있다. 건강, 안전, 보장, 상생이라는 가치입니다. 2030을 위해서 재조정하고 있고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민 먹거리 선언문

서울시민 모두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민누구도 경제적 형편 때문에 굶거나 질이 낮은 먹거리를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하고,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민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아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먹거리의 접근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을 선언합니다.

1.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자하고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모든 시민, 특히 경제적 취약층과 건강 취약층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급식 분야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서울시민, 나아가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식량보장을 위해서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고, 중소 가족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형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5. 보건, 복지, 고용, 주택, 도시 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통합적 먹거리 정책을 통하여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 먹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 먹거리는 개인과 집단, 사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임을 인지하고, 서울시민의 음식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서울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 지속 가능한 서울 먹거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폭넓게 참여 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 가치를 공유하여 지속 실효성 있는 협치 서울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7년 6월 20일



[발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 '워드클라우드'로 데이터 이미지화함]

3. 서대문구 푸드플랜 사례_민관협치, 먹거리위원회 등

- 탁현배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



[기조 발제: 서대문구 푸드플랜 사례 - 민관협치, 먹거리위원회 등 / 탁현배]

자치구 중에서 푸드플랜을 실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 중에는 서대문구가 유일합니다. 농촌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구요. 변 기자님이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를 엄마들에게 맡기려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푸드플랜은 먹는 것은 기본권이고 먹거리는 공공재이니 공공이 개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공공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정부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개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막 푸드플랜을 시작한 서대문구의 상황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계획을 수립했고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이라 앞으로 벌여질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공공급식과 공적 조달체계

먼저 공공급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 먹거리 스마트 플랜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푸드플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적 조달체계입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5대 원칙이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보장뿐 아니라 한국 사회 농업의 지속가능까지도 신경을 쓴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각 구마다 물류센터가 있는 겁니다. 각 구에 공적인 물류센터가 있고 연결된 생산지가 있습니다. 생산지에 있는 중소농들을 중심으로 한 생산물들이 서울시로 올라오면 구의 센터에서 학교 급식에서 관여했던 곳 외에 학교 급식이 커버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복지시설, 구청의 식당, 그 밖의 모든 공공기관의 식재료까지 중소농들의 식재료를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잘 알려져있지는 않은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여기 동남권 지역 중 하나인 강동구입니다. 2017년에 했구요. 이후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시의 13개 구가 시작을 했습니다. 각 구가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자기 매칭 산지랑 연결하는 거예요. 서대문구도 푸드플랜을 시작하면서 이 정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공적 조달체계가 생긴다는 의미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원에 못 오는데 원에 급식비는 있어요, 그래서 급식 재료를 받아서 각 가정에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5대 원칙 〉

1. 공공급식을 통해 서울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2.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3. 중·소 가족농 중심의 생산·조달체계 구축으로 도농상생을 실현한다.
4. 교육을 통해 농업의 생태적 가치와 먹거리의 소중함을 향상시킨다.
5.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차별화된 관계시장을 조성한다.

#민간협치를 통한 푸드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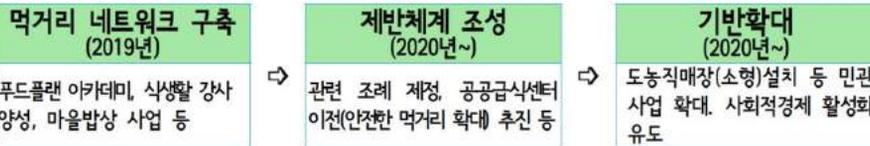
서대문구의 공공급식은 다른 구랑 다르게 조례에 ‘먹거리 관련 민간관계자와의 협치, 또는 ‘먹거리 정책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센터이지만 푸드플랜 지원센터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경기도 다른 지역의 푸드플랜 지역도 많이 가봤는데 단점이 대부분 농림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관 주도로만 가게 됩니다. 관공서의 지침이 한번 내려지면 지역의 시민사회나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던 기존의 공익활동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대문구는 푸드플랜 수립단계부터 민관이 함께 했었습니다.

민관 TFT를 만들어서 푸드플랜 수립을 함께하고 푸드플랜 연구용역이 끝난 뒤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가지고 실행 TFT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민관 20여 명이 구성되어 있었고 그 팀에서 1년 동안 논의를 해서 서대문 먹거리 기본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근거로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민관이 함께 추진해오는 과정을 거쳤던 거죠. 서울에는 협치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협치 사업에서도 지역사회 혁신 계획이라는 걸 선정하는데, 먹거리 의제, 푸드플랜 의제들을 협치의제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서대문구 푸드플랜 로드맵

서대문구 푸드플랜 추진 로드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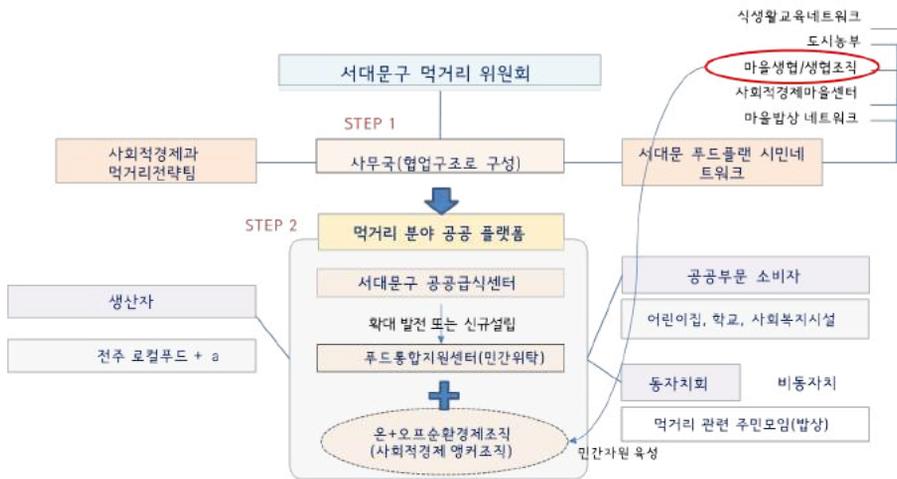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2023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 마을밥상 사업 추진 • 푸드플랜 아카데미 추진 • 슬로푸드 생태계 마을조성 • 이웃과 함께하는 서대문 장독대 사업추진 • 아동 식생활 강사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협치이제 사업 '공동체 밥상사업' 추진 •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 GMO없는 바른식생활 교육 • 공공급식센터 이전추진 • 푸드플랜 네트워크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서울시에서 공공급식 업무를 확대할 경우, 공공급식센터에서 수행 • 도농직매장 설치 • 커뮤니티 키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직매장 (소형추가설치 등) • 커뮤니티 키친 추가설치



위 그림이 서대문구 푸드플랜 로드맵인데 작년 올해에 기본적인 조례 구성하고 의식개선을 위한 아카데미 같은 것도 하고 시민사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올해 위원회도 구성하고 이후에는 좀 판로를 확대한다거나 푸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서대문구 먹거리 위원회는 민간을 포함한 4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치 회의가 보통 50명인 것을 생각하면 자치구에서는 꽤 큰 규모입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분들과 민간위원 3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성 밑에 협치 사무국이 움직이면서 양쪽에 푸드플랜 민간네트워크 그리고 주무부서,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 서대문구에는 먹거리 전략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푸드플랜의 혜택인데 이게 서울시에는 없어요. 행정팀으로 4~5명을 전담팀으로 꾸려서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다가 굉장히 틀리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공공 플랫폼, 공공급식이라던가 학교 급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산지랑 연결돼서 소비자들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체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푸드플랜



<서대문구 푸드플랜 최종보고, 서대문구, RANETCOOP, 2019.>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협치 회의 먹거리 사업

푸드플랜이 농촌지역에서는 이해가 쉽습니다. 농민소득보장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쉽고 유권자들의 요구가 크거든요. 도시지역에서는 그게 약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개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푸드플랜 아카데미, 먹거리 축제를 진행했어요. 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 100여명을 모셔서 서대문구 안심 먹거리 지킴이단으로 위촉을 해드렸습니다. 권역별로 모여서 요리 활동도 하고 학습도 하고 자기동네에 먹거리 개선에 대해 활동하고 전담 주무관도 붙어서 계속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공공급식으로 전주랑 연결되어 있는데 일반소비자들에게는 접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직매장을 설립하는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직거래 장터를 연 거죠. 북가좌동의 저층 주거단지에서 진행했는데 지역 통장님들이 많이 움직이셔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꾸러미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꾸러미가 더 유명해졌는데요, 전주시에 실제로 코로나 피해 농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 제안을 했고 천 개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 만에 완판이 되더라구요. 주민들도 뭔가 기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서대문 협치 의제에 제안했던 사업이기도 하고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공동체 마을 밥상을 통한 어린이들의 행복한 한 끼'가 있었습니다. 초등 방과후 아이들을 어떻게 돌봄 할지를 먹거리 중심으로 보자는 거였죠. 실제 먹거리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공모를 해서 2개 공동체가 선정이 됐는데, 대상을 선정할 때 논란이 있었던 게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가 맞벌이 부부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취약계층으로 가지 말자고, 결정을 하고 맞벌이 부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넣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농가 돕기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전주푸드 서대문구 친환경 농산물 상생 꾸러미

주문 방법: 온라인 주문(jfoodmarket.co.kr)
 * 다음 세터에서 전주푸드와 연결
문자주문 (010-5606-2151)
 * 문자주문 후 가장 빠른 문자전송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후원(지급)과 후원(배달):
 방문(농산물)과 방문(배달):
 배송(농산물):
 후원(농산물):
 후원(농산물): 후원(배달) 4회, 1회

※ 1,000원 세트 한정수량!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 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발송 일: 4월 18일(목)~20일(일)

문의: 온라인 고객센터
 문자메세지(010-5606-2151)

구성품

세로파 (1개)	고추 (1개)	토마토 (1개)	감 (1개)	양파 (1개)	대파 (1개)	상추 (100g)	+	고추 (100g)	감 (100g)
----------	---------	----------	--------	---------	---------	-----------	---	-----------	----------

주문방법 04.17.(금)까지 주문 가능하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주문
문자주문
(010-3606-2151)

>

수량/금액 확인
결제

>

주문 확인 후
배송준비

>

04.16~20.
택배발송

※ 04.15.까지 주문완료한 04.16. 발송
04.17.까지 주문완료한 04.20. 발송

전주푸드, 농민사랑센터, 농이웃, 서대문구, 서대문구공공급식센터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이미지 제공

그래서 실제로는 일반 아이들까지 다 오게 됐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여기서 요리 수업이라던가 그 밖의 돌봄 활동을 하면서, 만든 건 가져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하고요. 여기에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식재료가 들어가요. 2.5단계 격상일 때 하지 못했고 이제 다시 인원수 줄여서 재개했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온라인 방식으로 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먹거리는 아이들이 와서 가져가게 하거나 도시락을 싸아놓으면 가져가는 방식도 준비해놓은 상황입니다.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조례와 먹거리 위원회

이걸 제도적 틀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주제가 되겠죠. 기본 조례 안에는 기본권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먹거리 위원회, 실행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먹거리 주방 같은 것도 운영해서 먹거리 축제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치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의에 오라고 해서 가면 행정부서에서 안을 만들고 이분들은 사전에 미처 읽어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검토하고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분과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서대문구에서는 분과 3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과가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배치했습니다. 서울의 먹거리 위원회를 보았을 때 아쉬웠던 건 실제 지역 밀착이 약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분과 구성원을 서대문구 주민으로 한정했어요. 명망가들이 아니라 식생활 강사, 어린이집 원장, 지역 생협 활동 매니저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연기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분과들이 활동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분과 활동이 벌어지면 여기서 온갖 의제들이 나올 거고 그걸 실행하는 게 우리 일이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주민은 먹거리가 사회, 경제, 건강,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영역에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인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②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도시계획 등의 정책과 결합된 먹거리정책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③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고 영양이 충분한 먹거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④ 미래의 식량보장을 위해 중소가축농을 배려하는 도농상생의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 ⑤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며 생태계 보존을 고려하는 먹거리체계를 만든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주민"이란 구에서 살거나, 배우거나,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먹거리"란 식품 및 농림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식품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 ③. "먹거리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언제나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④. "먹거리체계"란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

제4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 29조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 ① 구청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제 12조 제 2항에 따른 협의체, 관내 먹거리 단체 및 주민과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지원 사업
 - 2. 공공급식 활성화사업
 - 3.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 4. 도농 상생 직매장, 가공센터 등 건강 먹거리 공급 확대 사업
 - 5.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교육 홍보 연구 도농교류사업
 - 6.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먹거리 관련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 7. 그밖에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판매시설, 교육시설 및 공공 급식센터 등을 통합 지원센터 내에 둘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1조(먹거리 주간 운영)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농상생 확대 및 인증 농림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서대문구 먹거리 주간'에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사항

서대문구에서 노동 상생 공공급식이라는 공적체계부터 해서 먹거리 기본조례, 먹거리 위원회 같은 것을 쭉 만들면서 먹거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그를 통한 우리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푸드 플랜에서 관의 영역과 민의 영역이 있다면 민이 함께 노력은 했지만 지금 완성한 것은 관의 영역이에요. 앞으로 노력하는 게 먹거리 민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 광진구가 먹거리 민간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민간이 만들어서 위로 추동하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자체장이나 구성이 바뀌더라도 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제도와 정책은 거의 수립이 된 상태인데 이게 현장에서 잘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서대문 지역 생협이 있는데 이 생협이 좀 더 큰일을 하고 공적인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실행기구인 푸드통합 센터를 구성하는 걸 한창 논의 중입니다.



[말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 '워드클라우드'로 데이터 이미지화함]

질의응답

Q 먹거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나요?



[송파 청년예술가 / 최다빈]

먹는 문제가 가난한 아이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해주신 걸 들으니 대치동 친구들도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질 낮은 음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자는 시각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해주신 내용 중에 수급자들이 왜 더 좋은 걸 먹어?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돈을 벌고 있는 저도 오늘 점심을 편의점에서 먹는데 몇백 원 차이를 두고 고민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 결국은 변하지 않고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어릴 때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너네 집에 컴퓨터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니 저도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건의 변화가 아닌 인식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기자님은 흠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A 먹는 행위, 돕는 행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변진경 기자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 나눠주신 대로 먹거리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더 이상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사회가 사람이 먹는 행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구요. 3,000원이냐 3,500원이냐 사이에서 500원을 선택하면 삶에서 다른 부분을 깎아야 한단 말이죠. 그걸 깎아내리지 않기 위해서 3,000원짜리를 택하고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청년수당, 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때 생활의 변화를 경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만 원씩 6개월 받는 거였어요. 인생 자재를 바꿀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라면에 계란을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얘기들 합니다. 편의점 도시락 대신 뼈 해장국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여유인 거죠.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 정도 여유도 우리 사회가 줄 수 없는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수당에 대해서 국감 때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주점에서 썼더라. 대부분 그것이 호프집인데요. 치킨을 파는 곳이에요. 치킨집에서 카드를 긁으면 코드가 주점으로 뜨는데,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왔다.’, ‘유흥비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사용하면서 청년들이 해당 과로 전화를 해서 많이 물어봤다고 해요. “제가 오늘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주점이라 저 때문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문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 하셨대요. ‘가난한 애들 밥 사 먹으라고 줬더니 치킨까지 사 먹어야 해?’ 이런 시선이 맞는 걸까요? 이 한 끼를 사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아서 35,000원짜리 뷔페에 갔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빈곤아동단체에 1:1 자매결연을 맺어서 후원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아이에게 패딩을 사주자고 해서 참여를 했더니 비싼 구스 패딩을 사달라고 해 분노해서 후원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 글에 ‘가난한 주제에 나도 못 입는 걸...’, ‘뽀뽀하다. 엄치없다.’, ‘후원을 끊자.’ 이런 댓글들이 주르륵 달렸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돕는다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어서 많이 안타까웠네요.

Q 먹거리 선언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송파시민연대 / 박지선 활동가]

도시에서 먹거리를 많이 고민하지만, 좋은 음식을 사 먹는 것에 관심을 갖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먹거리 운동,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보장을 하는 것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우리가 잘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시 먹거리 기본선언이 너무 좋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느끼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요? 또 선언 내용의 한계는 없나요? 좋은 예시와 한계 예시에 대해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시민사회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김소연 박사

조례선언이나 제도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언이나 제도는 만들어지기까지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화까지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 선언 안의 단어에 담긴 의미가 있잖아요. 로컬푸드 운동이나 유기농 운동, 식생활 개선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성과와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방향에 대해 지역에서의 논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의와 성찰과 평가, 그래서 방향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협력할 것들은 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늘 같은 공론장들이 필요하고 이게 제도를 현실화시킵니다.

오히려 먹거리 정책에 있어서 한국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실천이나 운동은 약한 편이에요. 농업 운동으로 모든 걸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거리 문제가 농업의 문제예요. 농업을 살려야 하는 문제로 보고 우리 삶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수혜 정책, 지원 정책으로만 생각을 하고 농민운동으로만 발전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도시소비자 운동이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라던가 먹거리를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토론과 모임과 그런 활동들을 지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시민들이 관점을 갖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속 수혜 쪽으로 나가기 쉬워요.

먹거리 기본권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존엄성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할 때 노란 조끼 입은 사람이 행정의 문구가 쓰여 있는 도시락과 가방을 들고 오고, 이런 건 먹거리 기본권에 맞지 않고 존엄성 있는 먹거리 보장 정책이 아닙니다. 꿈나무 카드도 그렇죠.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요.

메르스나 광우병, 조류독감 같은 때에 갑자기 푸드뱅크나 무료급식소에 해당 고기들이 늘어납니다. 무료급식소에 계신 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그 먹거리를 피한다는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존엄성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인가 고민해봐야겠죠. 단순히 먹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존엄성 있는 먹거리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Q 존엄한 밥을 위한 공공급식센터의 역할과
현재의 어려움이 궁금합니다.**



[송파아이쿱생협 /이희승 이사장]

탁현배 센터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서대문이 앞으로 어떤 롤모델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두의 존엄한 밥이 지켜지기 위해서 정부 급식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코로나 위기, 기후 위기 상황인데 공공급식센터는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A 민간의 지역 활동이 필요합니다.

- 탁현배 센터장

제가 공공급식센터장으로 있어서 그 중심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종합적인 먹거리 계획 푸드플랜으로 같이 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송파구에도 공공급식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린이집도 많은 지역입니다. 물량도 많고 사업 규모도 크구요. 구민들이 센터에 지역사업을 함께 하자고 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센터에서는 그 게 쉽지 않습니다. 조레나 지침에는 이리이러한 것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이 요구하면 그 '등'이 주어집니다. 구에서는 식생활 교육 예산도 갖고 있어요. 노동상생교류도 할 수 있고요.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구는 먹거리 분야의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사회적기업, 지역 내 생협들, 식생활 강사, 사회적경제센터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구의원을 불러 간담회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원이 받기로 했구요.

먹거리 관련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들어놓으면 처음엔 일거리가 많을 수도 있고 명할 수도 있고 뭘 논의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오고 직접 실천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생협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와서 논란 게 서울의 유명한 4대 생협들이 의외로 지역 활동이 없더라구요. 서울 안에서 소비 활동, 조합원 활동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송파구의 활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지부에서 움직이면 지역정책과도 같이 연결되고,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도 생협들이 주도하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마련된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장마와 태풍 때문에 산지가 난리가 났어요. 가격이 폭등하고 산지 수급도 어려워서 그걸 메꾸는 게 바쁜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밀키트 같은 비대면 방식 식사에 대해 논의했고, 공공급식센터에 키친 역할을 하는 공동 전처리장, 센트럴 키친을 만들어서 여기서 전처리를 해서 필요한 이들에게 갖다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 역할을 공공급식센터가 해야 한다는 논의까지는 왔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명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질문]

변진경 기자님께

- 청년과 아동의 흡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관점은 무엇인가요?
- 편의점 이용이 청소년들에게 이용 접근성이 크니 편의점 음식에 대한 품질개선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기자님이 생각하는 흡밥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아동, 청년 흡밥 실태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도 알고 계시는지, 아시면 말씀해주세요.
- 취재하시면서 아동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까 발제했던 서대문구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자님께서도 그런 걸 취재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휴밥 취재하면서 마음에 남았던 게 스스로 내가 뭘 먹을지 선택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난 이런 좋은 걸 먹을 처지가 안되니까 자격이 없다고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그게 제일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나 청년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사업들을 벌이시는 걸 봤는데 크게 일어난 건 보진 못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많아서 지금부터 발굴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급식 카드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 편의점인데 가장 나쁜 음식의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하죠. 편의점에서 좋은 음식을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편의점 사장님들께 여쭙보니, 가져다 놔도 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을 선호하지 않는 거죠. 싸고 배부를 수 있는 음식, 자극적이고 짠 음식들에 이미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여러 지자체나 NGO에서 식생활 개선 캠페인이든 사업을 벌일 때, 지금까지 민관협력 프로그램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비영리 기관들뿐만 아니라 영리 기업들도 함께 무언가를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 프랜차이즈, 배달의 민족 같은 곳이에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요. 편의점 거점을 만들어서 좋은 도시락, 신선한 채소 과일 꾸러미 같은 것을 배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배달 인력이 항상 부족해서 문제인데 사회적 환원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의미 변질의 위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상상을 발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전질문]

김소연 박사님께

- 최근 자신과 가족의 맛있는 한 끼에 집중하는 이들이 일반적 중산층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들에게 먹거리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일까요?
- 서울시가 먹거리기본권 관련 구 단위 지원 플랜이 있을까요?
- 우리나라 식량 생산 자급자족률이 얼마나 되는지요?
- 적절한 먹거리 대책에 대해 잘하고 있는 지자체나 정부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 자료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답변

적절한 먹거리 접근이 가능한 중산층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먹거리 정의 서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행동하라고 했을 때 행동하지 않는데요. 자꾸 보여주고 들었을 때 음직인다고 하더라고요. 푸드저스티스내러티브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변 기자님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못 먹고 있는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은 것에서는 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한국의 푸드먹방은 너무나 풍요롭잖아요. 모두가 다양한 음식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계단 아래 난간에서 밥을 먹는 청소 노동자, 김 군의 컵라면 유품 이런 게 계속 보여져야 합니다. 아직도 밥 아닌 밥을 먹고 있는 현실이 있다는 걸 계속 볼 수 있게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벗어나야 하는 건 적절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는 건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인권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죠. 국가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기준을 세워줘야 해요. 정부가 나서서 공공급식이나 노인복지관, 공공병원, 교도소 이런 곳에서 질 좋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2차적으로는 기업을 규제해야 합니다. 개인이 공부하고 의식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샀는데 건강한 음식의 확률이 높아야 해요. 이런 거는 기업 규제가 필요하죠. 또 그런 걸 위배하는 기업에 강한 제재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구요. 기업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나 기업이 이런 걸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민 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먹거리 운동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생협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처럼 먹거리에 관심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친환경 공공급식을 만들어낸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심이 사회운동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든다거나 사회운동화하는 흐름이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기업과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질문]

탁현배 센터장님께

- 먹거리기본권, 먹거리 정의와 관련하여 공공급식센터가 필요한 근거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먹거리 민간네트워크의 우수사례를 좀 더 소개해주세요
-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많이 알려주세요.
- 송파구도 공공급식 실시한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주무부서가 어딘지요?
- 서대문구와 도농상생 맺은 지역과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 아까 광진구에서 먹거리 커뮤니티를 민간영역에서부터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공공먹거리 커뮤니티 조성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카페 운영 중인데 이 공간을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무부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어린이집은 보통 아동청소년과의 보육 관련 부서가 맡게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쪽에서 담당하면 먹거리 정책이 아니라 보육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에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서대문구는 전주시가 매칭 지역입니다. 전주시는 푸드플랜에서 앞섰던 도시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푸드플랜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처 완주랑 함께 로컬푸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안동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가치지향적이고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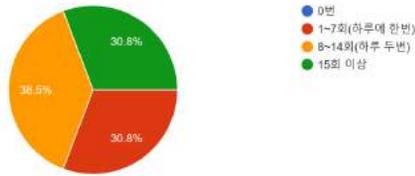
네트워크는 지역상황이 다 다릅니다. 광진구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탄탄해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서대문구가 네트워크 쪽에서 늦어지는 이유는 시민사회 역량이 약해서예요. 지역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카페에서 단체들의 네트워크라기보다 개인들의 연대, 포럼 같은 것을 해봐도 촉진될 수 있겠다 싶어요.

대전이 전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구가 6개인데 먹거리 민간네트워크가 다 있어요. 구별로 생산자 네트워크도 다 있구요. 그리고 대전시 푸드플랜 네트워크가 중앙에 또 있습니다. 활동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간사단체가 있구요. 간사단체가 무슨 역할이냐면 상근자를 냅니다. 그런 단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줘요. 그런 논의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역사가 오래 되었어요. 일단 송파지역 특성을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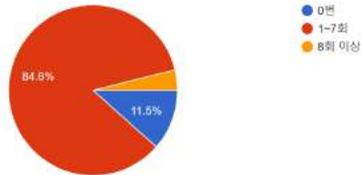
VII. 공론장 참여자 의견

온라인 공론장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주제 관련하여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 : 2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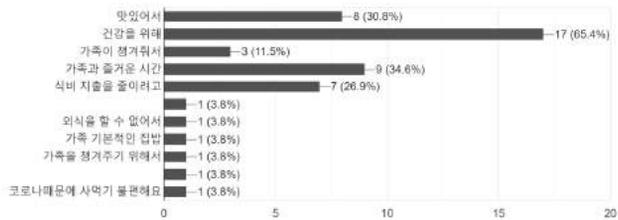
일주일에 집밥(집에서 먹는 밥)을 먹는 횟수는?
응답 26개



일주일에 외식 횟수는?
응답 2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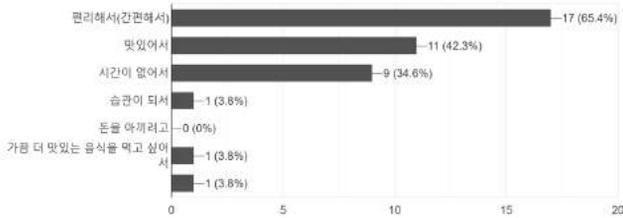
집밥을 챙겨먹는 이유는?(복수응답 가능)
응답 26개



•집밥을 챙겨 먹는 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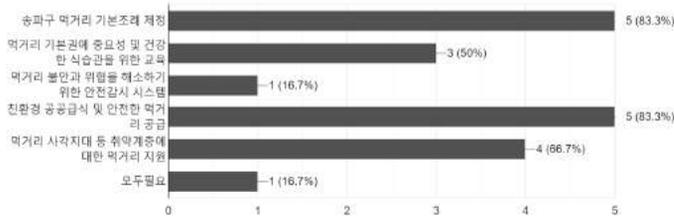
위 외식방법 이유는?(복수응답 가능)

응답 2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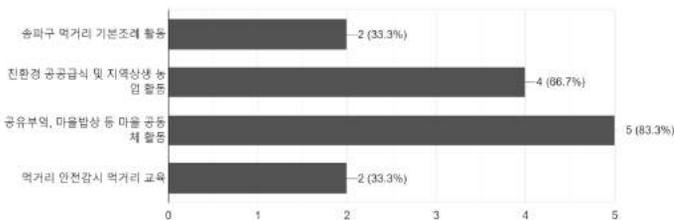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송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응답 6개



내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응답 6개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 송파에서 시급한 과제로는 '송파구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과 친환경 급식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마련으로 나타남.

참가자 소감

먹거리기본권 공론장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해서 소홀했던 먹거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받아야 할 인권과 기본권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송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먹거리와 인권을 중심으로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민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 이희승(송파아이쿵 이사장)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먹고 마시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 시민사회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야 하겠고,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보길 제안합니다.

- 박종현(플랜터스/행복누리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기대이상의 공론장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송파에서 함께할 공론장의 주제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현황과 법제도적 분석, 대안 제시까지 발제의 흐름이 특히 좋았던 공론장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한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에도 송파지역의 NPO와 주민들이 관심갖는 의제로 공론장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박지선(송파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공론장 주제를 선정하고, 무엇을 이야기 할지 내용에 대한 4~5 번의 준비회의, 발제자 섭외를 위한 10여 통의 전화. 코로나 단계격상으로 한번의 연기와 첫 온라인 공론장 진행. 많은 분들의 도움과 활동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에 대한 참여자가 적어 아쉽지만, 앞으로 할일이 많습니다. '모두의 밥' 모두의 먹거리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먹거리 돌봄, 친환경 먹거리, 지역상생, 환경살림까지 다양한 의제가 지역 안에서 들쭉날쭉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희(송파PM)



<송파구 NPO 공론장 참가자 단체 기념 촬영>

**청년 주거권
청년, 강남 살자**

2020.11.16

NPO공론장 기록 강남구

공론장 의제 선정 과정

-워킹그룹 회의

강남구 워킹그룹이 주목한 것은 청년이었다. 강남구 워킹그룹에는 강남마을넷과 강남아이쿵, 강남혁신교육위원회, 공감플랫폼 등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는데, 강남의 공익활동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의 청년활동가들의 등장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강남구 워킹그룹은 2차회의(6/23)부터 강남의 청년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장을 마련해 보기로 하였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청년들은 강남시민사회에 대한 궁금증과 청년을 위한 지원 정보, 공익활동의 생활속 의제, 자유로운 모임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해 주었다.

강남구 워킹그룹 3차회의(5/8)에는 청년이 강남의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틀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았다. 청년,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에 대한 배려, 언택트 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활동 방식의 전환, 지역사회의 건강과 돌봄 문제 등을 다루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강남구 워킹그룹 4차회의(10/28)는 “강남청년이 말하는 청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공론장(Zoom)을 열었다. 5명의 발제자가 청년의 주거(정수미), 일자리(문규경/박상윤), 활동생태조성(이승훈), 청년정책과 사회참여(임상원)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온라인공론장에 참여한 청년들은 별도의 기획회의를 통해 11월16일(월)에 공식적으로 강남구 청년공론장을 열어서 강남에서 청년이 활동하기 위한 우선적 조건과 기반이 되는 주거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치기로 하였다.

공론장 개요

청년 주거권 청년, 강남 살자

2020.11.16 (월) 19:00~21:00
 앤스테이블
 (강남구 삼성로 414)

시간	내용	참여자
18:30 ~ 19:05	등록	사회 : 강남청년네트워크 임상원 대표
19:05 ~ 19:10	공론장 안내	사회자
19:10 ~ 19:30	기조발제-앤스테이블 사례	정수현
19:30 ~ 20:20	주제발표 -청년의 입장에서 본 청년주거정책과 현실	박상윤, 신재민, 최세진, 임희택, 최지혜
20:20 ~ 20:30	휴식	
20:30 ~ 20:50	주제 토론	사회자
20:50 ~ 21:00	소감나눔, 마무리	사회자

강남구 NPO공론장의 의의

공론장 안내

저는 오늘 사회를 담당하게 된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 대표 임상원입니다. “청년, 강남 살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공론장은 청년 주거권에 관하여 1부는 분야별 발제로 강남의 사례와 강남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또 타 자치구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2부는 청년주거를 주제로 참가자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토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 사회자 **임상원**(강남구 청년네트워크 대표)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임상원 대표〉

기조 발제

머물기 좋은 커뮤니티하우스 _앤스टे이블 개발 사례

-정수현
앤스페이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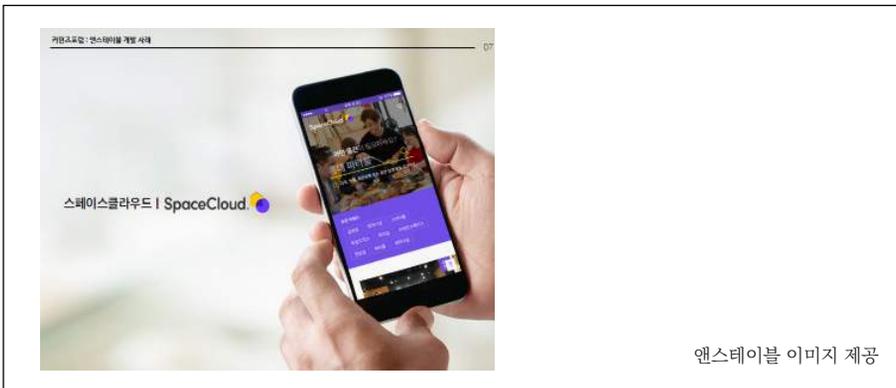
[기조 발제: 머물기 좋은 커뮤니티하우스_앤스टे이블 개발 사례/정수현]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앤스टे이블이라는 공간을 어떤 배경으로 개발하게 되었는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공공의 것, 운영은 소셜벤처가 장기 책임!'이라는 제목이 핵심입니다. 앤스टे이블은 서울시의 부지에 리츠라는 공공형 펀드 방식으로 건물을 올리고 개발했습니다. 앤스페이스는 그 펀드에 공모사업을 통해 출자자로서 참여해서 30년의 장기 운영 권한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이곳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민간위탁이나 운영의 한계를 아시겠지만 최대 5년 이상은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데 앤스टे이블은 리츠라는 부동산 기법을 사용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앤스페이스는 도시혁신 서비스를 만들자는 목표로 설립된 소셜 벤처이고 현재 이 건물 2층을 공유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향하는 것은 IT 솔루션과 공간에 대한 개발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부동산 종합서비스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커먼즈입니다. 공동체가 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의 부동산 개발에 관심이 있고 그 첫 번째 실험이 앤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 공간 비즈니스의 시작 - 스페이스클라우드

저희의 문제 인식은 임대 상가가 많이 비어 있고 실제로 건물주들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실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라는 컨셉으로 7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스페이스클라우드라는 플랫폼이었는데 현재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직접 공간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많은 사례를 모아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스페이스클라우드에는 재미있는 공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 공간 기획자들이 공간을 재밌게 만들어서 스페이스클라우드를 통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모델을 첫 번째 비즈니스, 공유 비즈니스로 실현했습니다.



앤스페이스 이미지 제공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저희가 공유 비즈니스를 7년째 하다 보니 저희 사이트에 80만 명이 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 가입자가 되었고 문화를 유통하는 분들도 2만 명이 넘는데 그들이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입니다. 그 말은 전통적인 부동산 운영 방식보다는 장기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젊은 공간 기획자들과 그들이 공간을 리드하는 모습들이 저희 플랫폼에 데이터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간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인터뷰를 했는데 사용자들은 남의 공간을 빌려 쓰는 것에 이미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로 인식하는 10~20대가 새로운 공유공간을 소비하는 메인 주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간 사용이 줄어도 10~20대가 사용하는 공간들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간을 콘텐츠로 인식하는 이 세대를 잡으면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도 채울 수 있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겠다는 것을 플랫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엔스페이스 정수현 대표〉

#공간을 '자산'이 아니라 '콘텐츠'로 인식하는 세대

공유재산 - 커먼즈 (Commons)

저희 플랫폼이 경쟁력이 있으려면 여기서 공간을 운영하는 젊은 공간 기획자들, 운영자들이 계속 비즈니스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건물주에게 밀리게 되거나 아니면 옮겨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공간을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간 운영자들이 부동산 임대인으로부터 장기계약권을 확보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끝에 자연스럽게 커먼즈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단순히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아니라 건물 임대인의 지위권 일부, 사용권의 일부를 장기로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에 대해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사람들... 공간 운영자를 도시기획자로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들이 장기 책임 관리할 수 없을까

커먼즈시티

앤스टे이블 이미지 제공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영국 런던에서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런던의 공유지, 즉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부동산 회사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하는 CIC라는 회사들이 개발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30%를 그 지역의 복지로 되돌려주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부동산에 이민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가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를 로컬리즘 액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공동체 이익회사, 즉 CIC라는 형태로 인증이 되면 부동산을 최대 100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도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우리가 공공의 공유재산을 가져다가 운용을 잘해서 그 이익금으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젊은 공간 기획자들이 오랫동안 공간을 영위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 열심히 국내 사례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소유권자에게 강력한 권한을 다 주고 있어서 민간차원에서는 실제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건물주가 갖고 있는 사용권과 수익권을 공동체를 위해서 장기로 쓰실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넘기는 행위를 우리가 부동산개발방법론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고민을 하던 차에 SH에서 우연히 서울에 있는 시유지를 사회주택으로 개발을 하면 장기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로서 리츠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 사회주택 리츠라는 공모, 그 모델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낙후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사회주택이 보편화 되어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부터 직정한 월급을 받는 분들까지 폭넓게 접근 할 수 있는 게 사회주택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가 앤 스테이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앤스테이블의 운영 방식

기본적으로 땅은 공공의 것, 서울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를 SH와 서울시가 만든 리츠라는 부동산 펀드에 토지 임대권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 펀드에 우리가 출자해서 우리가 운영권을 가져가는 방식으로의 공모입니다. 운영 방식은 공유 오피스 등 근린생활시설로 수익률이 발생하고 여기서 3명 정도 인건비가 나올 수 있어서 주택서비스, 카페, 전체 공간관리에 3명을 채용했습니다. 주택은 남녀 각 10명, 20명이 살고 있고 입주자 완료된 상태이며 특히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커먼즈포럼 - 앤스테이블 개발 사례 26

건물주가 되어보는 경험

땅은 서울시 것, 공간은 리츠로 2% 출자자로 최대 30년 장기 운영권



80% 공유주택

시세보다 80% 이하 10년 거주 의무성 시행규칙으로 개발
1인가구 및 이혼기 청년들의 도심 내 주거 안정
크리케터의 커뮤니티 하우스라는 컨셉으로 사회적자본 연결

20% 안심상가

공해집스페이스 및 행복집 공간으로 운영
관내시장은 스페이스클라우드, 로컬브랜더 그룹과 협업
내몰 배리먼트로 지속가능한 안심형 부동산으로 제공

앤스테이블 이미지 제공

가능하게 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 강남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이 있는데요. 땅값이 비싸니까 수익이 없는 문화 활동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하이브(Hive)라는 이 공간을 강남구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소로서 대관도 하고 있고 카페, 저녁에는 바(bar)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와 바의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고 매출의 15%를 지급하는 형태로 장기계약으로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운용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로부터 오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일반시장 논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는 100% 운영을 해도 2.5% 이상 수익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업수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지역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면서 약간의 이익이 생기면 그걸 모아서 관리비를 절감하거나 전체적인 이용료를 낮추는 용도로 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공유지 공간을 가져다가 런던의 CIC 사례처럼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역량을 가지고 개발하고 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사용자들에게는 적정 수준의 주거공간을 마련해주고,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앤스테이블 이미지 제공

주제 발표

1. 청년, 강남 살자!

- 박상윤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분과장



[주제 발표:청년, 강남 살자! / 박상윤]

저는 현재 강남구 청년 네트워크와 서초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상윤입니다. 한국이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몇 위 일까요? 17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17위에 랭크가 되어있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 89점을 받았어요. 높은 편에 속하는 점수임에도 체감하기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멜버른인데 저는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제 삶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큰 체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거환경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32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 163개국에서 32위이면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의 물질적인 부분이나 팍팍한 삶의 모습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순위가 높아도 체감이 낮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빠른 만큼 정보통신 접근성은 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강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은 '기분 좋은 변화 품격있는 강남'이라는 타이틀로 '청년이 살기 좋은 강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 타이틀을 들으면 굉장히 반감이 들 것입니다. 지방의 꼬트머리에 사는 분들도 강남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청년들이 살기 좋은 강남'은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청년 강남 살자'라는 타이틀도 사실 청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강남 살자'라고 했을 때 "청년이 강남에 어떻게 살아? 일자리도 없어서 힘들어 죽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청년 강남 살자'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조건이나 혜택들이 잘 마련된다면 청년들의 시각도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옴부즈맨 #청년주거혜택 #정책

청년 주거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9년부터 좋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옴부즈맨이라고 아시나요?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 있는 영향력과 활동 반경을 가진 관리자로 옴부즈맨이라고 하는데, LH에서 작년부터 청년 옴부즈맨을 발족했습니다. 작년 11월에 1기 활동을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심사 결과 최우수 제안으로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계약과정 개선방안', 'LH 공공임대주택의 청년 간 전공 나눔', '전월세지원센터와 부동산정보 포털 연계방안' 등 3개 제안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제안으로는 '지방 지역 LH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청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실버세대 주거복지 제공방안', '임대주택의 이미지 혁신 방안'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달에 2기가 출범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서 청년주거 혜택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받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이 대상인데 1인 가구라면 26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는 청년이라고 별도로 나뉘지 않았었습니다. 보통 부모, 자식, 가족의 범위 안에 청년 대상자를 포함하여 주거급여라는 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따로 만든다고 하고 기존 자체도 올해 시행되는 것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여 수입이 조금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분과장 박상윤>

기대와 제언

정부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강남구 역세권 청년주택 이야기가 나오지만 막상 알아보면 은근히 돈을 많이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직업도 불안정한 상황인데 LH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도 월에 지출해야 하는 월 임대료가 30~5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 7~8만 원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막상 알아보면 월 임대료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요즘에는 또 래와 함께 2인 1실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데 월 임대료가 생각보다 높아서 현실적으로 미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다른 누군가와 사는 게 불편하거나 혼자 거주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2년씩 계약하는데 청년, 국민에게 필요한 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환경입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건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면 그 지역에 좀 더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이동하지 않고 한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항상 불안함과 어려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달픈 삶을 사는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2. 청년 주거 문제

- 신재민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분과



[주제 발표: 청년 주거 문제 / 신재민]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에 청년문제 해결로 고민하고 활동하시는 참가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강남구청년네트워크 일자리 위원이지만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배경

청년 주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국내 상위 1~5%의 자산가들의 금융자산은 90%를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이 부동산에 집중하는 이유는 노후에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 편중되어 청년들이 살아야 할 공간까지 차지하고 거기에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부동산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 금액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고용이나 물가 상승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거는 삶의 공간, 힐링을 위한 곳이자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회 초년생이 서울에서 생활할 때 1~2인 가구의 월 최소 고정지출비는 80~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고정비를 제외하면 50만 원으로 살아가는 현실인데 그 안에서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세나 월세 적정선에 대해 물어봤을 때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전세는 2억, 반전세는 1억에 월세 40만 원 정도라면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주 위치는 역세권이 아니라도 주변 도보 10~20분 거리, 1~2킬로미터 반경으로 조용한 지역을 선호했습니다. 공유주택으로 공간을 얻게 된다면 꼭 필요한 개인 공간은 8~15평 정도로 옷장, 화장실, 책상, 침대, 에어컨, 배란다, 개인 창고 포함된 곳, 그 외 공유공간에는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세탁기 같은 기본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조건이라면 공유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11월 MBC에서 방영한 <서울시 전월세 실태 조사>에서 '비정상 거래' 유형의 사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서울시 전월세 비정상 거래 유형 사례 >

- 이면계약 : 보증금 인상 상한선 5%에 맞춘 계약과 별도로 요구하는 추가 보증금
- 깎세 : 반전세 계약 시 2년 뒤 퇴거 담보로 요구하는 월세 선납부
- 관람료 : 예비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받는 돈
- 위로금 :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로 집주인에게 받는 이사비 등
- 촉진비 : 예비 세입자가 중개업자에게 우선권을 요구하며 주는 돈
- 기타 : 기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경우 중개비 요구

MBC자료제공

또한 집을 계약하고 거주하게 될 경우 누수나 관리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공용 시설 부분까지도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려고 합니다. 사실 공용시설은 관리비에서 나가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청년이 고스란히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로 문제가 생겨 이사할 경우 이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홍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많아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모여 건물을 매입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제도와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신재민(우측)〉

#G밸리 하우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금천구가 모집하는 임대주택으로 주거 및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계층의 성장지원을 위해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지역 특성을 살려 청년기업인, 청년근로자 및 청년예술인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G밸리 하우스란

주거 및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계층의 성장지원을 위해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지역특성을 살려 청년기업인, 청년근로자 및 청년예술인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대상주택 및 모집세대

대상주택	공급호수	전용면적(㎡)	커뮤니티실	주차공간	모집대상
가산동 150-7	16호	29~31	1호(39.03㎡)	7면	1인(예비)창조기업가
가산동 150-14	16호	29~31	1호(39.03㎡)	7면	근로자
가산동 150-15	16호	29~31	1호(39.03㎡)	7면	근로자, 예술인



신청자격

필수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2인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금천구 거주자 우선 선발
- 공고일 현재 만19세~39세 청년(1978년~1998년 출생자중)
- 공고일 현재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기준 70%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액 1.67억)을 초과하지 않는 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자에 한함

아래 요건 중 택1 충족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 청년기업가
-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 청년근로자
- 관내 사업장 기간제 청년근로자
- 청년예술인

〈2017 G밸리 하우스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16호씩 3개 대상군으로 1인 창조기업가, 근로자, 예술인이어야 하며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금천구 거주자가 우선 선발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 청년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가 있고 이번에 새로 [청년기본법]이 생겼지만 사실 많은 청년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아울러 청년이라고 구분하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결혼하거나 아이가 있다면 청년이 아닌지 기본적인 청년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0. 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7695호, 2020. 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6., 2020. 10. 5.〉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만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소득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전년도 70%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기준을 좀 더 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금천구 거주자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저도 저 혼자 독립하고자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지 않아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 내용이 청년들이 움직이는 곳곳에 홍보가 되어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셜믹스형 공공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금천구가 모집하는 임대주택으로 대상이 청년뿐 아니라 주거 및 자립기반이 취약한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 주택입니다.

공동체 주택이란...

입주자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공동체주택 관리 규약이 마련된 주택임

*공동체 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의 공유공간으로 다른 유형의 주택 입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대상주택	모집현황		비고
	모집세대	전용면적(m ²)	
계	27세대		
금천구 시흥대로 149가길 28 (가산동 148-54)	12세대	26.98~29.84 (8.1평~9평)	주민공동시설 (카페회의실 27.14m ²) 태양광 설치, 엘리베이터 없음
금천구 시흥대로 149가길 26 나동(가산동 148-57)	15세대	26.84~38.09 (8.1평~11.5평)	주민공동시설 (공유주방38.09m ²) 태양광 설치, 엘리베이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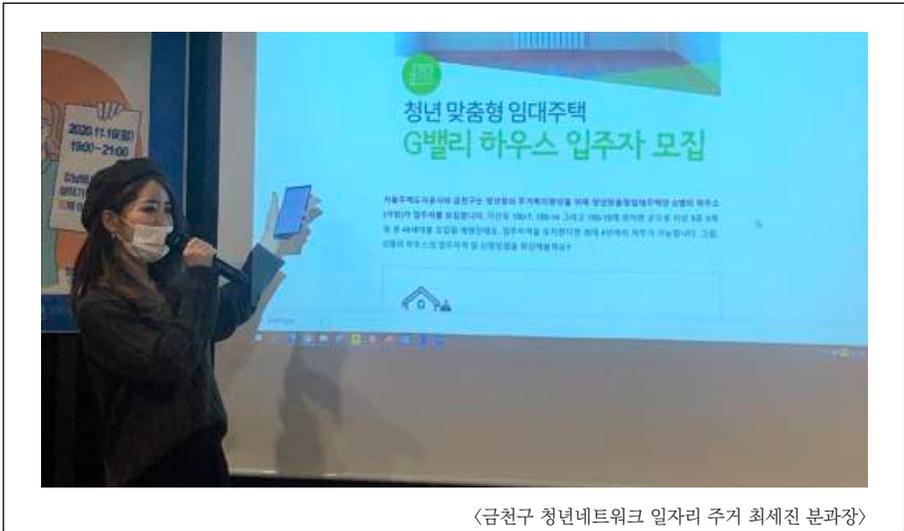
(2019년 소셜믹스형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청년 맞춤형? 주택 모집현황] 일부 발췌)

이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권 제공 측면에서 공공주택 사업의 취지는 너무 좋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편안하게 쉬고, 여유를 가져야 할 공간인데 좁아서 잠자고 식사하는 기본적인 생활 공간 외에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집이 좁아 이사를 생
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 지인도 자녀가 생기면서 서울을 떠난 분
이 있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부
분이 좀 더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청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평수 대비 저렴해서 거주 부담이 적었다는 점이었고, 환경적 측면
에서는 같은 건물(창업동/예술인동/근로자동)에 거주하는 입주민들과의 교
류를 통해 사업 운영 등 서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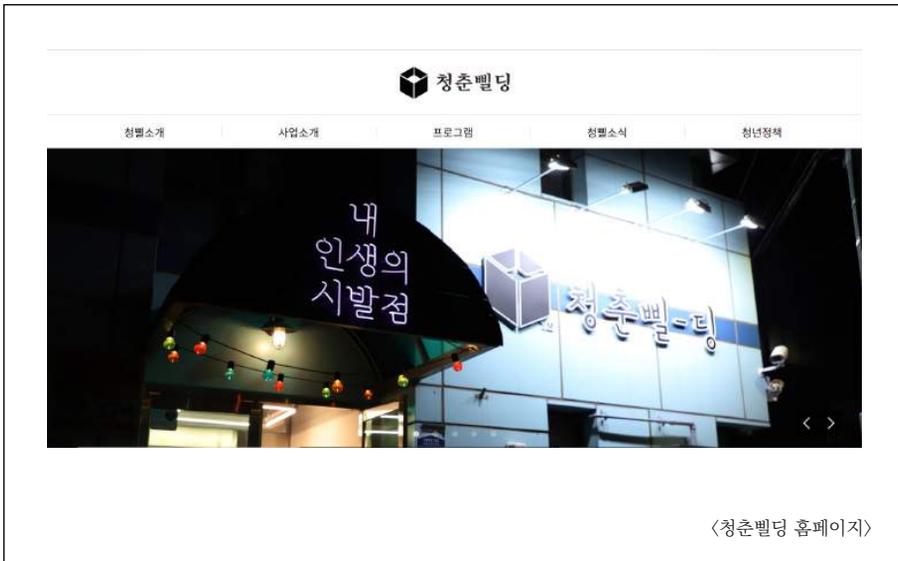
단점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알 수 없는 편견의
시선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지속성 면에서는 입주 초기
1~2년은 구청에서도 공용공간에 '마을관리소'라고 프로젝트매니저가 상주
하는 곳을 운영해서 식사모임, 청년모임, 영화감상회, 공구대여 등 소통을
위한 자리가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철수되면서 공용공간을 각 동별로 사용
하고 작은 소모임들이 사라지면서 점점 거리가 멀게 되어 삭막함마저 든다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천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 주거 최세진 분과장〉

#청춘벨딩

청춘벨딩은 금천구청과 꿈지락네트워크가 만들어가는 '청년-청소년 활동공간'입니다. 혁신교육 등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청년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이 후배들과 긍정적 만남을 지속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금천구에 있는 비영리단체로 1인 가구 및 금천구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 구청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청년에게 주거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등기부등본, 임대주택, 가계약금 같은 부동산 관련 용어나 법규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흔히 혼자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거처를 옮겨야 하는 시점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인데 청춘빌딩에서 무료 주거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및 청년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춘빌딩 상담 안내서>

위와 같이 금천구의 청년주택과 관련한 사례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거주 환경, 실내, 입지 등 실제 청년들의 삶의 환경이 잘 반영되어 진 것인지, 임대 기간이 장기적으로 계약되어 청년주택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는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들에게 사회적 여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달력 있는 홍보 방안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4. 청년 주거 무엇이 문제일까요?

- 임희택
성동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장



[주제 발표: 청년 주거 무엇이 문제일까요? / 임희택]

저는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고향은 지리산 산청입니다. 어렸을 적 산과 들에서 소를 타고 다녔고 수영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굉장히 극심한 노령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령화가 급속히 심화된 원인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이후에는 광역시나 서울로 옮겨가게 되면서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마을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노령화 #노인과 청년의 문제

성동구에서 처음 제시했던 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의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과 청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고 그 자치구가 활력소가 있으려면 끊임없이 청년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조사할 때 한국사회의 문제부터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 약 5,017만명 중에서 59.5%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 생산인구가 돈을 벌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의 주요 대상이 이탈하게 되고 노령화가 심화하여 그 도시는 점점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제가 사는 성동구의 용답동이라는 곳이고 이곳은 도시 재생 사업에 100억 규모, 골목길 정비사업에 25억 예산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강남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 강북구 지역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령화에 대한 해결책만 앞세운 채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 자치구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자치구의 생명력은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돈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한다면 월 30만 원~100만 원 정도의 기본 생활비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의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청년 유치를 위한 필요 조건들

그래서 저는 청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넓게 봤을 때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으로 기준을 두고 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그들은 그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그곳에서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술인과 협업해서 일자리와 연계하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이미 이런 사업은 다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런 사업이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실적을 위한 경쟁 구도라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의 정책 방향과 청년들의 필요를 잘 충족 시킬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구의 상황

강남구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강남구 소형상가 공실률은 2%, 중형상가는 8.5%에서 16.4%로 올랐습니다. 그 수치가 말해주는 건 이미 돈을 벌고 있는 큰 기업들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으로는 소형상가가 무너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강남구 채용공고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모든 자치구를 다 조사해봤는데 강남구가 평균 2만이 넘는 채용공고가 나오고 전체에서 18%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강남구가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청년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재 채용공고 사이트의 통계를 보았더니 서울시 전체 108,761건의 공고 중 강남구가 20,636건으로 전체 18% 차지했고 그 중 정규직 공고가 66%, 대기업은 1.7%였습니다. 이 통계는 강남구는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합하면 서울시 일자리 공고 전체의 33%를 차지합니다. 청년들이 강남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와 대기업의 일자리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면 그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며 살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청년의 주거

- 최지혜
영등포구 청년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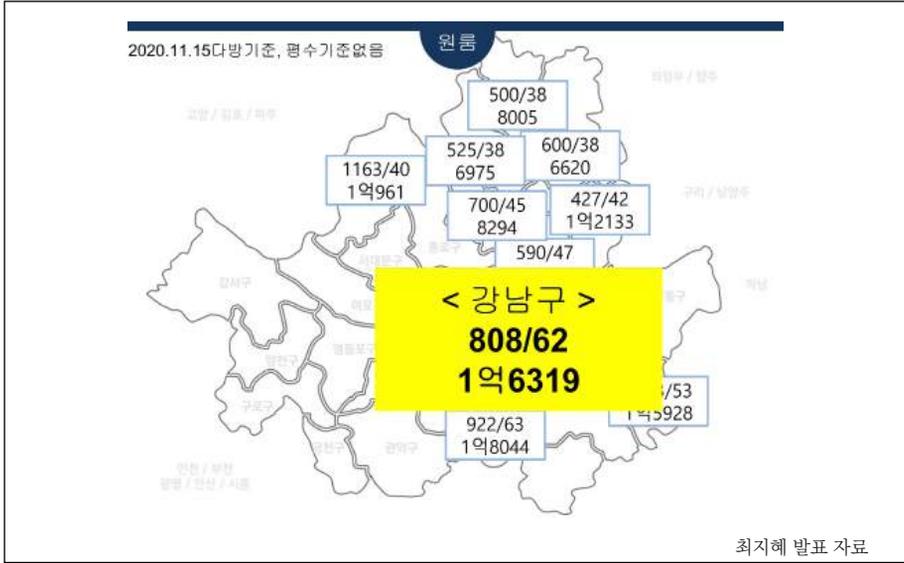


[주제 발표: 청년의 주거/ 최지혜]

저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의 주거를 주제로 사회 초년생인 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지만 월급을 받고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독립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회사 주변에는 없어서 영역을 조금 넓혀 찾아보았습니다. 월 임대료 33만 원인 원룸이 있었는데 그 방은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8평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샤워 시설이 있는 방을 알아보았더니 월 임대료 43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포기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구가 자취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취를 해보려는 마음에 비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원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서울시 풀옵션 원룸으로 평수 제한 없이 가격만 알아보았습니다. 원룸이고 평수 기준이 없고 월세, 전세를 알아보았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권역별에 따른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친구 집은 10평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지낼 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강남구에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강남구 2020.11.15다방기준, 관리비별도

동명	원룸		투룸,쓰리룸		오피스텔	
삼성동	1000/58	1억7300	1000/116	2억6300	1000/105	2억8500
신사동	1000/65	1억4000	1000/106	2억5800	1000/100	1억5000
대치동	500/61	1억4200	1000/108	3억7300	1000/108	2억2200
개포동	400/45	1억650	3000/98	2억9100	3000/80	2억5000
일원동	1000/50	1억	1000/113	3억9800	*	*
청담동	1000/69	1억6500	1000/99	3억3800	500/69	1억8000
도곡동	1000/62	2억8000	1000/110	2억7500	1000/80	3억2000
자곡동	1000/57	1억5800	500/70	2억4000	1000/55	1억7000
수서동	100/100	1억6000	2000/130	2억8500	1000/60	1억5000
율현동	*	1억4000	1억/70	3억	*	*
논현동	1000/68	1억9200	1000/119	2억7300	1000/90	3억400
역삼동	1000/69	1억9500	2000/110	3억340	1000/89	3억2200
세곡동	1000/60	1억7000	1500/110	2억1000	1000/71	1억8000

최지혜 발표 자료

#10평일 것 #안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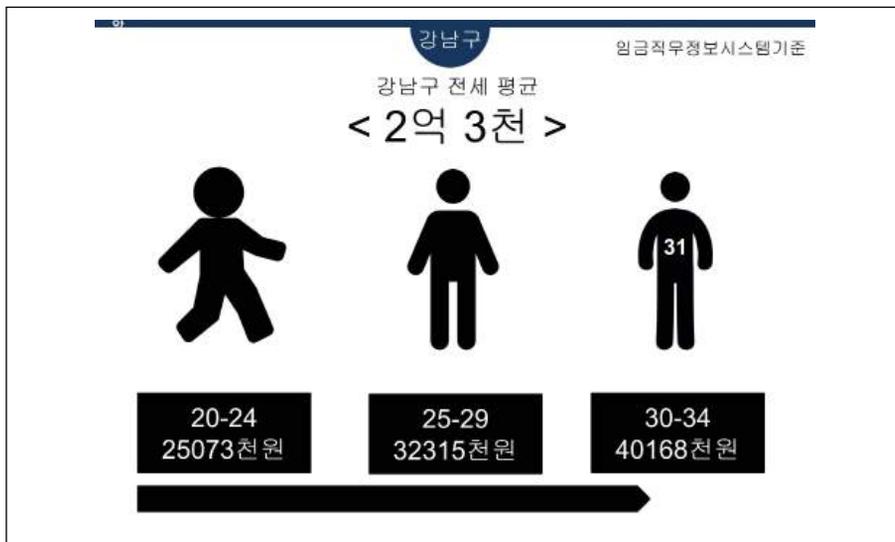
강남구 삼성동의 경우 전세가 1억 7,300만 원입니다. 월세는 월 임대료가 58만 원 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월 급여 150만 원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 58만 원을 지출하기에는 너무 높았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전부 높게 나타났으나 강남구가 더 높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의 조건은 10평, 그리고 주거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에 보안 설비가 설치된 집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기준 강남구에는 아래와 같은 지역별 평균 비용이 나왔습니다.

강남구			
0			
삼성동	7	929 / 88	
신사동	2	118 / 118	
대치동	16	1941 / 79	2억 2천
개포동	2	2000 / 75	
일원동	1	1000 / 70	
침담동	5	10667 / 73	2억 6천
도곡동	2		2억 3천
논현동	102	605 / 95	2억 4천
역삼동	159	674 / 91	2억 3천
세곡동	16	2100 / 45	2억

최지혜 발표 자료

#안정적 주거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 주거의 조건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전세로 살아야 갑자기 실직하더라도 몇 달간은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평균 전세를 알아보았더니 같은 조건으로 평균 2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평균 연 소득을 보았을 때 20~24살은 25,494 천원을 받고 25~29살은 32,166 천원 이었습니다. 31살에 2억 3,000만 원 전세에 거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을 고스란히 10년 동안 모아야 가능한 계산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나 식비도 지출하지 않고, 여가생활이나 의료시설의 이용을 거의 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다른 발제자 분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이 80-150만 원을 월평균으로 지출한다고 하셨는데, 그 평균인 115만 원을 매월 지출한다고 했을 때 31세까지 12년 동안 1억 6,560만 원을 지출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4~5세가 되어도 강남구에 원룸 전세조차 거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제언

현재 서울시에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숙사형청년주택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78가구의 청년주택이 건립되고 2020년 6월에 청년매입임대주택 15가구를 모집하는 등 강남구도 청년의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기준 강남구의 63.5%가 청년으로 약 13만 1,000명 정도인데 다수가 이런 정책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토론

남영일 - 동남권NPO지원센터 강남구 워킹그룹 PM

임희택 - 성동구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정수현 - 앤스페이스 대표

이성이 - 강남 마을넷 활동가

최지혜 - 영등포구 청년네트워크

최세진 - 금천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주거분과장 및 위원장

김동규 - 강남구 찾동 추진지원단

김은정 - 강남 아이쿱 생협 이사장, 강남 마을넷 대표

노미진 - 공감플랫폼 대표

박상윤 -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분과장

남궁정 - 도시노동연대 사무국장

신재민 - 강남구 청년네트워크 일자리분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토론]

사회자 다음 순서로는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주거권, 청년주거 정책의 현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의 주거권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의 정책들은 청년들에게 호혜적으로 임차보증금 같은 형태로 지원해주지만 그 이외의 전폭적인 단계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또한 청년주거정책 자체가 발제자분들이 이야기했듯이 거주공간이 너무 좁아서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가뜩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사실상 잠만 자고 직장에 가는 곳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년의 주거권과 청년 주거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에 살아가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분야별 발제 후 이뤄진 2부 자유 토론〉

이성이 청년 주택이나 사회주택 같은 지원 수량이 적은 현실인데 민간들에게 혜택을 줘서 청년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준다거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반시설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미진

오늘 발표된 내용을 들으니 곧 있으면 사회에 내던져질 저희 아이들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청년 시절 잠시 독립을 해야 했던 시기에 가진 자본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이 반지하였고 살기 열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살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노력보다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뜻을 모아서 조례도 만들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앞날의 우리 자녀들의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현

발제한 내용을 보고 공급자의 관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국가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핵심은 금융입니다. 이 지역의 평균 임대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임대료는 60~80만 원 수준입니다. 임대보증금이 4,000만 원이면 사회적 주택에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에서 자금을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하는 사회 임팩트 금융을 운용하는데 우리는 그들과 제휴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스테이블에 입주하는 대상자에게는 3,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4,000만 원 보증금의 집이지만 1,000만 원만 있어도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자산, 금융과 공적기금의 지원이나 운영 체계 시스템적인 부분들의 구조적인 연결이 필요합니다.

입희택 청년들이 10평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거주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주거하는 공간 기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정도의 삶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영일

서울시 정책을 보면 월세나 전세비 지원, 공간을 지어준다거나 하는 물리적, 재정적인 지원이 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의 살고 있는 곳은 거주하는 공간을 뵈가 아쉬움이 남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론장을 진행하는 앤스테이블도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의지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청년주택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궁정 최근 중랑구 묵동 역세권 쪽에 청년주택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중랑구 의회가 청년주택 입주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중랑구도 다른 여타 자치구처럼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청년네트워크가 있는데 주요 정책이나 의결을 할 때 별도 논의 과정이 없이 진행돼서 며칠 전에는 청년들이 청년 주택 입주를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집회를 했었습니다. 오늘 공론장을 통하여 청년주거 현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의 기성세대들과 청년들의 주거 여건과 환경을 위해서 좋은 여론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두 번째 논의로 오늘 금천의 G밸리 이야기도 잘 들었고 타 자치구의 사례들도 들었는데요.

강남에서 필요한 주거 정책은 무엇일까 의견을 나눠봅시다.

김동규

주거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가 중학생인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독립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집은 적정 평수가 지원되는 형태여야 하는데 점점 주거공간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적정 평수와 주거환경이 지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세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주택 1, 2층이 어떠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공유주택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유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거주공간이 작더라고 공유공간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원에 대한 계약이 종결되면서 그 공간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정책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혜 저는 서울 아니어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어디든 회사 주변에 청년이 거주 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독립하게 된다면 전세로 가고 싶지만 현실은 부모님 도움이 없다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좀 더 국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 청년주택도 많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정 사실 주거권에 대한 문제는 강남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에서 주거권 문제가 소유에 대한 문제, 거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적정 주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강남은 다들 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공유지나 공공자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나 운영이 있지 않는 한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은 넓게 보면 아파트 단지가 많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주택 단지도 많습니다. 강남구 주변의 사례를 보면 청년 여성이 주택의 한 칸에 임대를 사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외부에서 볼일을 해결하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듯 적정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 및 설계 부분이 정책적으로 먼저 다가가 주고 이곳을 개선하고 확장하여 사회적 주택이나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민 땅을 소유한 분들이 땅이나 주거공간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너무 쥐고만 있으니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유자에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보상책이나 노후대책을 정부에서 마련에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과 협의 체계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VII. 공론장 참여자 의견

참가자 소감

이번 앤스테이블에서 진행한 강남 워킹그룹의 공론장은 주제를 '청년주거'로 잡아 신박한 모임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각 서울의 영등포, 금천, 성북에서 온 타 자치구 청년활동가와 강남의 청년들 그리고 동남권에서 활동하신 시민활동가분들이 계셨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강남의 주도적인 청년주거정책을 만들어보자는데 의견이 모여졌다는 데에서 지난 공론장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나치게 넓은 주제를 설정하고, 여기에 현실 속에서 즉각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행동강령까지 이어지는 데는 공론장이 그 역할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의제를 다루고, 이에 따른 지역 전문가를 연속적으로 초빙하여 필요한 모멘텀을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운영과 개최에 힘써주신 동남권NPO센터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 남영일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임상원(강남청년네트워크 대표)

평소 NPO 관련 관심이 높다보니 공론장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하는 공론장이라 '과연 소통이 잘 될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도 해당 주제 관련 공감의 연령층별로 잘 되다보니 소통까지 잘 되었습니다. 공론장을 통해 알게되신 분들과 소통을 하다보니 배울점도 많았고 앞으로의 행보에 더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동남권NPO지원센터 공론장에 참여하여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윤 (강남청년네트워크 일자리 분과장)

앞으로 강남 시민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것 입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새로운 활동가와 새로운 사람들 사이의 좋은 연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NPO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론장을 통해 강남과 청년이라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점진적으로 다른 새로운 연결로 이어져 나가길 바라며, 저 또한 그러한 연결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남영일 (강남PM)



<강남구 NPO 공론장 참가자 단체 기념 촬영>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0.11.24

NPO공론장 기록 강동구

공론장 의제 선정 과정

-워킹그룹 회의

강동구는 서울 동남권 지역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단체 간 네트워크의 경험도 풍부한 곳이다. 그래서 강동구 워킹그룹의 구성은 강동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강동구 워킹그룹은 2차회의(6/16)부터 본격적으로 공론장 의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강동지역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신규 유입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시민사회 역할 담론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넷제로(NetZero) 전환사회에 대한 준비,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인식개선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강동구 워킹그룹 3차회의(7/15)는 넷제로(NetZero) 전환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른세상의 가능성, 전환적 뉴딜'이라는 주제로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녹색서울위원회 위원)를 모시고 지역에서의 전환사회 준비를 위한 다양한 실험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동구 워킹그룹 4차회의(7/29)에서는 공론장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였다. 큰 틀에서는 강동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전환적 뉴딜' 실천과제에 대해 공론장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지역 공익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자는 의견이 나와 9월 22일에 온라인으로 1차 공론장을 열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7개 단체 발표 : 생각실험사회적협동조합, 고덕천을 지키는사람들, 강일마을넷, 외플, 강동작은도서관네트워크, 화모니, 신나는여성자갈자갈)

1차 공론장 이후 새롭게 워킹그룹에 참여한 단체들과 2차례의 논의를 거쳐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동구 공론장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공론장 개요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0.11.24 (화) 17:00~20:00
강일마을 활력소
(상일로12길 95)

시간	내용	참여자
16:30 ~ 17:05	등록	
17:05 ~ 17:10	공론장 안내	사회: 생태보전시민모임 김선민 사무처장
17:10 ~ 17:20	[동영상] 화모니 환경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화모니
17:20 ~ 18:00	기조발제 -기후위기와 지역사회의 과제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최승국 이사장
18:00 ~ 19:20	사례발표 아이들 미래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엄마들의 한걸음 자원재활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패키지 작은 습관이 지구를 구한다 지구를 위한 한 걸음	전성옥 심현보 백명순 백은경
19:20 ~ 19:30	휴식	
19:30 ~ 20:00	질의 응답 및 소감나눔 마무리	사회자

강동구 NPO공론장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강동구 NPO공론장의 의의

공론장 안내

반갑습니다. 지난 7월부터 동남권NPO지원센터가 강동 지역에 있는 공익활동단체들을 모시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공론을 펼칠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거쳐 의견이 모였던 의제가 바로 '기후위기'였습니다.

코로나, 긴 장마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과 기후의 변화를 몸소 모두 체험하셨을 겁니다. 강동 지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들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의 문제의식도 높았던 터라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는 마당으로 시작하여 주제발표, 사례 발표의 순서로 공론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기후위기의 현황과 지역에서 기후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같이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사회자 김선민(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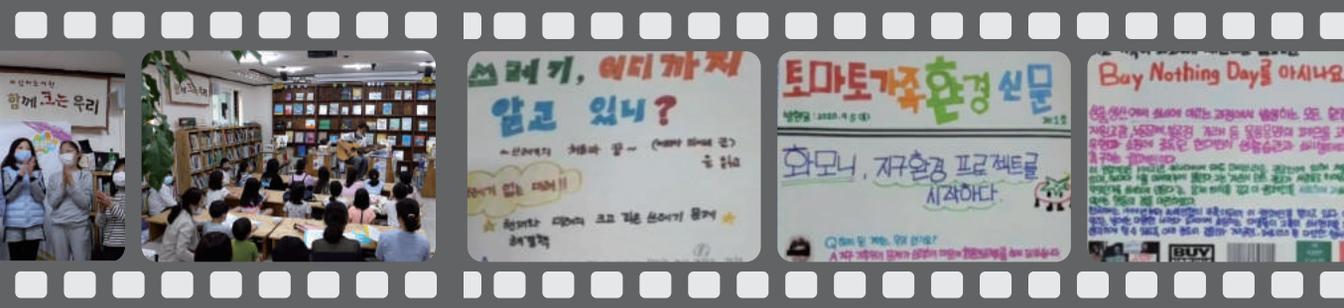
<김선민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여는 마당

‘화모니’ 환경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우선 오프닝으로 여는 마당을 준비했습니다. 강동 지역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함께 크는 우리>의 가족 합창단 <화모니>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아이들도 현재의 지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운명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화모니의 '화'가 평화의 화(和)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노랫말을 쓰고 음률을 만들면서 생명과 평화를 고민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알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조 발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 '워드클라우드'로 데이터 이미지화함]

기조 발제

기후위기와 지역사회의 과제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기조 발제: 기후위기와 지역사회의 과제/ 최승국]

#기후위기시대

지구온난화 그리고 1.5도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과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전 세계 평균기온은 1도가 높아졌고 그렇다면 이제 0.5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는 전 세계 평균기온보다 2배 더 빠른 속도로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이미 2도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아마 더 높은 상황일 것입니다.

지난 33년 동안 북극의 빙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것은 단순히 북극곰의 삶의 터전만 없어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면이 50cm만 높아져도 뉴욕 같은 대도시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그리고 제 3세계의 해안 지역에 살고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남은 빙하가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33년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

미세 먼지

심각한 미세 먼지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미세 먼지의 절반 정도는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 중에 대부분은 석탄화력발전소, 경유 차 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봄에 미세 먼지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가 준 뜻밖의 선물인데, 사람들의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사람들이 차량을 덜 이용하면서 미세 먼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경제활동을 조금 줄였을 뿐인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핵발전소 사고의 확률은 핵발전소 수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가장 많이 지어진 나라는 첫 번째는 미국, 두 번째는 구소련, 세 번째 프랑스, 네 번째 일본, 다섯 번째는 한국입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다시 사고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프랑스와 한국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팬데믹

코로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코로나는 중국의 우한으로부터 우연히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 운동가들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10여 년 전부터 예견 해왔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지 않으면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시대가 오고 이것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내년 정도가 지나면 제어가 되겠지만 제 2, 제3의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2019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식물 멸종

그리고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동식물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물들이 멸종되는 첫 번째 원인은 도시화 되면서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져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들이 살 수 있는 생활 조건이 변화하고 먹이사슬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인간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길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환경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인류도 멸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대안은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에너지 전환의 개념

중앙집중에서 지역분산으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로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울진, 고리, 영광, 월성에 있는 대규모 원자력발전소를 지어 거기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서울로 에너지를 가져오면서 밀양 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맞이했고 지역의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지역분산형, 소규모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에너지전환

- 원자력 발전의 대안은
 - 안전한 에너지 사용: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 기후변화의 대안은
 - 화석연료 사용 중단, 에너지 사용의 원천 감량
 -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 미세먼지의 대안은
 - 화력발전소 중단, 경유차 사용 억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 동식물의 멸종의 원인과 대안은
 -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 야생동식물 서식처 파괴
 - 생태계 보전과 기후변화 억제
- 결국은 에너지전환이 문제 해결의 열쇠
 - 에너지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시민참여형으로

10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이미지 제공

에너지 수요 감량

또한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계속해서 늘어나 도로가 막히고, 도로가 막히면 도로를 새로 뚫지만 그래도 차는 여전히 막힙니다. 아무리 도로를 넓혀도 교통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도로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교통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한정으로 에너지를 쓴다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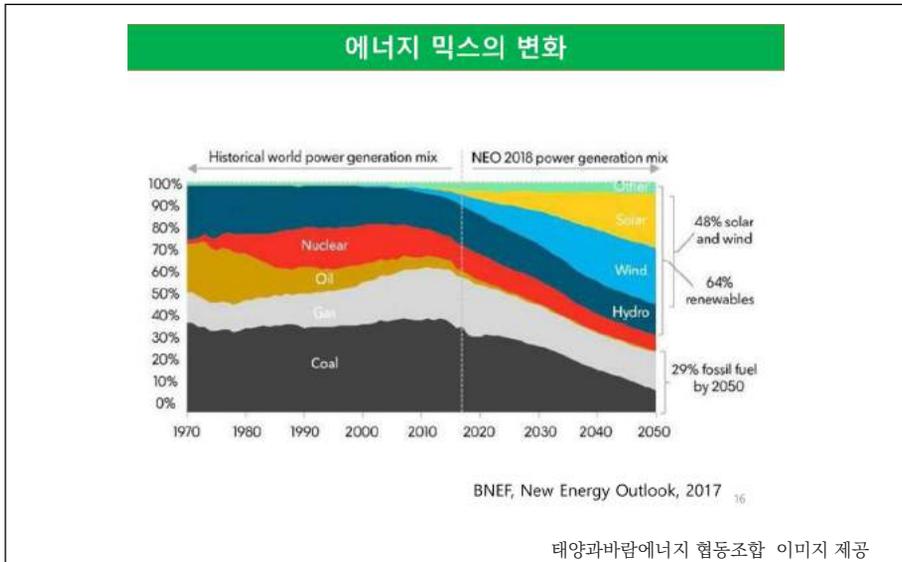
에너지 시민성

에너지라는 공공재를 정부와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시민성'을 갖춘 시민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역으로부터 에너지를 자립하고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방정부를 설득해서 에너지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세계적 흐름

재생가능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는 26.2%의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얻고 있고 2050년이 되면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64%가 재생에너지로 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바른길로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국가 재생에너지 발전 현황을 비교해봤을 때 한국은 3.8%로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자 석탄화력발전소, 원자력 에너지발전소의 의존율이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성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과 같은 시민참여 방식 또한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2040년에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를 18.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까지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0-35%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확산 속도가 꽤 빠른 것으로 일정하게 궤도에 올라가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도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안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우리는 에너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즉 에너지 프로슈머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시민들을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많은 부분의 에너지는 건물에서 사용됩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사용량의 68%가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기만 줄여도 에너지를 상당히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 총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이 커지고 가전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많은 것이 전기를 사용해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인데요. 집에서 세어나가는 전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한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정책을 추가해서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기 용량인 1GW를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100만 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기요금의 정상화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구조의 원인은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저렴한 나라에 속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은 거의 3배로 늘어난 데 비해 전기요금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전기요금도 오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현재는 그 상승분만큼의 요금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해준다는 것은 전기요금이 왜곡되고 있다는 뜻이며 또한 곧 우리가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전은 매년 2조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원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전기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말은 전기로 꼭 써도 되지 않을 것들을 전기로 쓰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예가 에어컨, 인덕션 등입니다. 아주 편리하지만 전기를 낭비하게 됩니다. 제조업에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 에너지인 석탄, 석유로 전기를 만들었는데 전기값이 1차 에너지보다 싼 거죠. 이런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과제

에너지 시민성을 가진 시민들의 등장 필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생가능에너지는 속성상 지역분산형, 소규모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쓸 에너지를 내가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는 지속가능성과 수용성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가 일으켰던 많은 지역 갈등 때문에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도 반대부터 합니다. 또한 내 지역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에너지를 내 지역의 이슈, 나와 관련된 일로 받아들이기 위해 에너지 시민성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에너지 프로슈머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의 베란다나 공동체의 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부지를 대여해 상업용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서울시의 전기에너지 소비량의 68%는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에너지를 줄인다는 것이 에너지 수요 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이 '내가 쓴 전기를 제값을 주고 쓰겠다.', '녹색 전기를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에너지 전환을 하도록 촉구하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인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시민참여형, 지역분산형이라는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구조 특성에 들어맞는 주체로서 지역에서의 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을 전환 마을 에너지자립마을(전환 마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합의를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에너지 자립 방안을 찾아 발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지역의 주택을 개량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마을 단위로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공론장이 열린 강일마을활력소>

사례 발표

1. 아이들 미래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엄마들의 한걸음

-전성옥
그린맘 '지구온도지킴이' 대표



[사례 발표: 아이들 미래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엄마들의 한걸음/ 전성옥]

저는 강일동 주민으로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사업으로 <지구 온도 1℃ 낮추기 캠페인>을 제안하게 된 그린맘 지구온도지킴이 전성옥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기후위기에 대한 저의 관심의 시작은 쓰레기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잘 처리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딘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 후 쓰레기 산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구온난화는 빙하가 녹고 있고 그로 인해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정도였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로서 육아와 교육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니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NEWSIS 이미지 제공

쓰레기 문제와 함께 또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어미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게 물고기가 아니고 플라스틱 덩어리였습니다. 제가 처음 크리스 조던의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1년 전에 그때 제가 저희 막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어미 새 입장에서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세플라스틱을 아이에게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되었구요. 플라스틱이 재활용된다고 해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했지만 정작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빨대 같은 경우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줄 알고 분리수거 했지만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집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고 플라스틱에 든 음료수를 사주다가 이젠 아니다 싶어서 최대한 재활용 가능한 종이팩 음료로 사용하려고 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엄마들이 먼저 실천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변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덩어리를 먹이로 착각하여 새끼에게 먹이고 있는 어미 새, 죽은 새의 배 속에 남아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의 모습이 담긴 크리스 조던 작가의 사진〉

#지구 온도 1℃ 낮추기 캠페인 활동 내용

맘카페 기반 커뮤니티 활동

엄마들이라면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요. 강동구에 강동맘, 미사맘, 리버파크 등의 인터넷 카페에 이런 환경에서 대한 문제, 에너지 절약, 육식을 줄이고 채식하기 등 이런 게시글을 올려 같이 동참 할 수 있게 정보도 전달하고 함께하자고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웃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EM 발효액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서 이웃들과 EM 만들기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쌀뜨물은 그냥 버리면 그것도 수질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쌀뜨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EM 발효액을 만들어서 실생활에서도 사용하고 비누라든지 주방세제 등 엄마들이 만들 수 있는 활동을 같이했습니다.



환경캠페인

원래 저희 계획은 야외에서 아이들과 동네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고 그 쓰레기를 분리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환경에 대해 알아가는 캠페인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모임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각자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느끼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그리고 저의 관심사가 쓰레기에서 기후위기로까지 확장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도서 책 읽고 관심 갖기

인터넷에 환경 도서 관련 책 목록이 있어 찾다가 <쓰레기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하여 쓰레기를 중국에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 생긴 것도 알게 되었고 몰랐던 사실들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관련 도서를 읽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레타 (행동하기)

그레타 툰베리가 UN 연설에서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꼭 제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처럼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커서 부모를 원망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레타처럼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도 그레타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본주의 이익보다는 환경을

우리가 아무리 소비를 아낀다 해도 더 이상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체제를 바꾸고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찾고 실천하기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나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만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발제 내용에서 태양광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서울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을 텐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지만 민과 관이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활동



1. 기후위기 도서 책 읽고 관심 갖기
(영상이나 게시물을 통해 접해도 되지만 책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잘 읽고 대처해야 합니다.)
2. 우리는 모두 그레타(행동하기)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레타가 되어 기후위기를 주변에 알리고 실천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많은 사람이 알고 함께 이겨나간다면 할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것 처럼 환경부도 기후위기 심각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해야 합니다.
3. 자본주의 이익보다는 환경을
(체제를 바꿔야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어무리 소비자가 덜 사고 아껴쓴다고 미터라도 기어미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4.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찾고 실천하기
(민과 관이 함께 기후위기 대책 마련하기)

그린맘 이미지 제공

마지막으로 올해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를 많이 들어가 봤는데요.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경이나 재활용과 관련된 게시물을 커뮤니티 카페에 홍보하면서 <헌법 제 35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걸 정말 모든 국민이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아이들이 방치될 때도 있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스트레스받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 많은 사람이 자리를 채워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EM 발효액 만드는 것도 귀찮아하고, ‘우리가 이거 한다고 이게 얼마나 나아지겠어?’ 하는 부정적인 시선도 많았어요.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로 시작해서 우리, 그리고 마을, 그리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혹은 ‘국가가 정책을 마련해 주겠지’ 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많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맘 '지구온도지킴이' 전성욱 대표〉

2. 자원재활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패키지

-심현보
예비사회적 기업 '아립앤위립' 대표



[사례 발표: 자원재활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패키지/심현보]

저는 주식회사 아립앤위립의 대표이며 지역에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후위기, 환경 쪽에 직접적인 활동은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씩 연계되면서 기후위기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폐지 수거 대신에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기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줌는 폐지가 재활용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리사이클과 업사이클 관련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rip&Werip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이 약 17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5만 명은 서울시에 있는 중학교(평균 재학생 625명) 기준으로 2,800개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소득원을 분석했을 때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폐지 수거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 자체가 실제로는 근로 시간 대비 단가, 육체노동 대비 단가 자체가 낮고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좋지 않아서 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 기업소개 및 관련이슈



아립앤워립은 폐지수거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1차로 작품활동 지원(예술도구, 작품활동장스, 미술감사 등 재료)을 통해 그림작가로서 노인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려진 작품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해당 작품을 활용한 굿즈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아립 앤워립이 보유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합니다.

2차로는 소비자에게 전달할 **굿즈의 패키징** 과정을 폐지 수거노인들에게 위탁하여 두 번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아립앤워립은 위의 활동들을 통해 우리 주변의 폐지 줍는 빈곤노인들에게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

- 온/오프라인 판매 : <https://shop.aarp.com/airipwerip>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iripwerip>
- SNS 채널(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이거나
- <http://www.aarp.net/airipwerip> (http://www.aarp.net)



아립앤워립 이미지 제공

제품 제작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굿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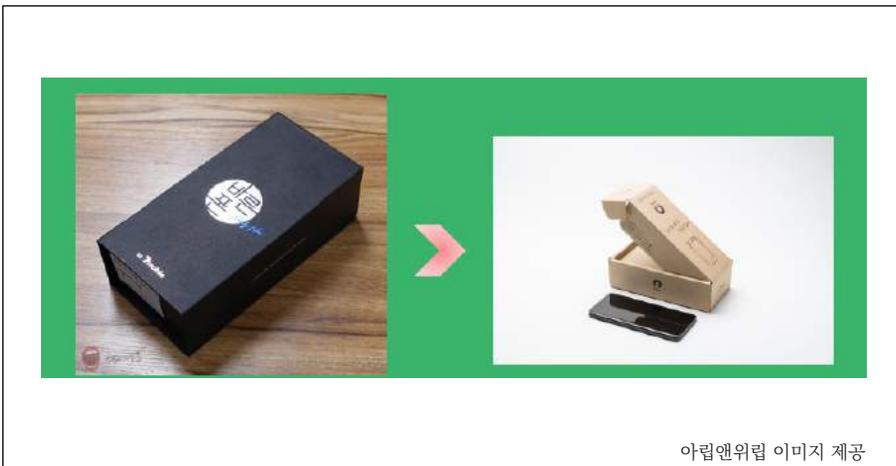
우리는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드리고 어디선
가 구매를 하면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만드는 것은 문구류에 해당하는 엽서
나 노트,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접
착제 사용이라든지 환경을 보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
다. 다른 하나는 재생지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립앤위립 이미지 제공

'환경친화적' 패키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것에 사용되는 종이들은 FCC 환경 관련 인증을 받은 걸 사용하거나 100% 재생지 혹은 종이펄프가 아닌 비목재질인 사탕수수 껍질을 활용한 재질을 활용해서 노트나 굿즈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환경 관련 패키지로 저희가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나 지자체, 단체에서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보통 핸드폰을 구매하면 케이스에 포장돼서 받게 됩니다. 박스 안에 핸드폰 기계가 들어 있는데 그 박스가 싸바리 박스라고 하는데 박스 위에 겹표지를 씌우고 예쁜 종이나 색감 있는 코팅제를 씌워서 만들기도 합니다. 옆면을 열 수 있게끔 자석으로 고정하는 장치를 해 넣기도 하고 금·은박으로 음양을 넣거나 접착제가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일이 제거를 해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립엔위랩 이미지 제공

실제로 요즘 기업에서 많이 이슈화되는 것이 환경문제인데 저희가 이러한 이슈들을 타개하고자 재생지로 만들어진 패키지를 고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종이 자체를 접거나 끼우는 방식으로만 패키지를 구상하였고 최소한의 잉크만 사용하는 기법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만들고 실제로 유통되는 사례가 올해 2월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낸 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패키지를 만드는 것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옆면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 점선을 따라 자르거나 접게 되면 한 번 더 쓸 수 있게 펜 트레이 형태로 만들어지는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이걸 통해 실제로 많은 사례가 설명되고 있고 다른 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저희에게 협업에 대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부스 및 종이 미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서 행사나 축제를 하지는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행사를 했었습니다. 행사장에 가보면 부스를 설치하곤 하는데 저희는 버려지는 폐목재나 폐팔레트를 사용해서 부스를 만들어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행사를 하면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부스에 참여하고 싶은데 함께 온 아이들 때문에 잘 보질 못하더라고요. 아이들과 부모님의 눈높이가 달라 관심사가 다른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키즈 카페처럼 재생지로 만든 종이 미로 안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놀 수 있게끔 하고 그 시간 동안 학부모나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 제품은 100% 재생지로 만들고 재생지 박스를 통해서 종이 미로를 만들어 아이들이 놀고 그 바깥에는 기업에 대한 홍보나 행사와 관련된 사진전을 진행했었습니다.



(아립엔위립 대표 심현보)

교육 활동

업사이클 교육 <새로운 쓸모 프로젝트>

저희는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면서 그것에 대한 사례를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잡지를 통해서 팔찌를 만든다거나 환경을 아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한 에너지 학교라고 코원에너지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에너지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

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환경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두 번째 쓸모를 고민해보는 것, 그것부터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ncome

고점수입 창출

고점 거래처 확보 및 연계를 통해 머브산물의 노동시간을 줄이며,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Virtuous circle

자원의 선순환

폐지로 만들어진 재생지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해 재생지의 새로운 쓸모를 만들어갑니다.



Appreciate

우리의 인식개선

'올바른 버린' 캠페인 '새로운 쓸모'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통해 폐지수거노력과 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킵니다

아립엔워립 이미지 제공

3. 작은 습관이 지구를 구한다

-백명순
환경오너시민모임 대표



[사래 발표: 작은 습관이 지구를 구한다/ 백명순]

환경오너시민모임 대표 백명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지구는 이대로 괜찮을까'입니다. 환경오너시민모임이 환경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아이스팩 재사용 그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경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강동구는 서울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 건너에는 워커히이 있고 한강을 따라 녹지가 많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녹지율이 50%가 넘는 전원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약 2011년 즈음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고 우리 구에도 고덕 강일지구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녹지가 대폭 줄어들게 된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그러던 중에 생활 속에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플라스틱의 심각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생활 패턴이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선식품에 대한 택배 발송이 급증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스팩 성분에는 폴리머라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에는 5초, 사용에는 5분, 분해에는 500년이나 걸리는 이 아이스팩이 동물과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을 매립하면 토양이 오염되고 배수구에 버리면 수질이 오염되고, 소각하면 유해물질이 나오는 이 아이스팩의 처리가 아주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에 2018년 서울시에서 주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플라스틱 없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만의 소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아이스팩을 세척과 소독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젤 특성을 이용해서 방향제 만들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재사용의 경우는 단순한 캠페인 외에는 저희가 개인이나 시민단체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강동구청 청소과를 방문 하였고 담당 팀장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9년도에 관내 현대홈쇼핑과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하여 민.관.기업(소상공인) 3자 간 업무협약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와 운영에 대한 역할분담을 통해 재활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3월에 현대홈쇼핑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강동구 관내 6개 전통시장상인회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아이스팩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팩 재활용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인 환경 운동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향제 만들기

그다음에는 젤 특성을 그대로 활용하여 방향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스팩 안에 있는 젤을 용기에 담고 여기에 물감으로 예쁘게 색을 내고 천연오일을 첨가하면 예쁜 방향제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경과 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내용물이 줄어들어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와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5개의 동주민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아이스팩을 이용한 방향제 500개를 만들어서 기증하는 행사를 통해 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 순환 교육을 통해 약 1,7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지역의 봉사단과 함께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을 약 31회 정도 했습니다.



2020. 5. 27. 진행된 '강동구청 열린뜰 재활용 폴리마켓'에서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 체험 중인 아이들

환경오너서민모임 이미지 제공

활동의 결과

이런 활동의 결과를 간단하게 수치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2019년에는 70,151개, 2020년에는 106,153개(10월 말 통계)의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총 88.3톤 정도의 쓰레기를 감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산해 보면 2019년에는 18.24톤, 2020년에는 27.6톤으로 총 45.8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도 생겼는데 서울 여대에서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를 수업 소재로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관.기업(소상공인) 3자 협력의 모범사례로 소개되었고,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동아일보 등 각종 언론에서 좋은 사례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이스팩을 수거하면서 수기로 기록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시민랩2020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CT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아이스팩 지역별 발생량, 수거량 및 시장별 수요 파악 등을 자동화·전산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 해야하고 또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전국적으로 캠페인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지구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레타 툰베리처럼 “How dare you!”라는 질문에 우리가 각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습관이 지구를 구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오너시민모임 백명순 대표〉

4. 지구를 위한 한 걸음

-백은경
초록바람 대표



[사례 발표: 지구를 위한 한 걸음/ 백은경]

초록바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산은 우리 동네 산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태적인 마을 만들기를 통해 자연생태계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물들은 일정한 기후와 환경 아래서 생활하는데 기후변화는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요. 올해 강동구에 서식하는 청개구리 산란 시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알을 낳는 시기가 한 달이나 빨라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불편이나 피해를 주는지에 집중되어 있고 생태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생물 다양성의 위기를 감수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지구를 살리는 한걸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물다양성보존 시민참여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용맹이 삼총사 창작공모전

초록바람은 해마다 <용맹이 삼총사 창작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전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으로 양서류의 인식증진과 보호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 오른쪽의 그림들은 올해 출품된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양서류는 꼭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인하였고 두 번째 작품은 양서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빨간색을 주로 이용하여 디자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상 작품인데요. 웅덩이 물이 차가워서 파란 목도리를 하고 있는 무지개 개구리를 표현했고 봄을 기다리는 개구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봄을 기다리는 개구리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언제 나와야 할지 매우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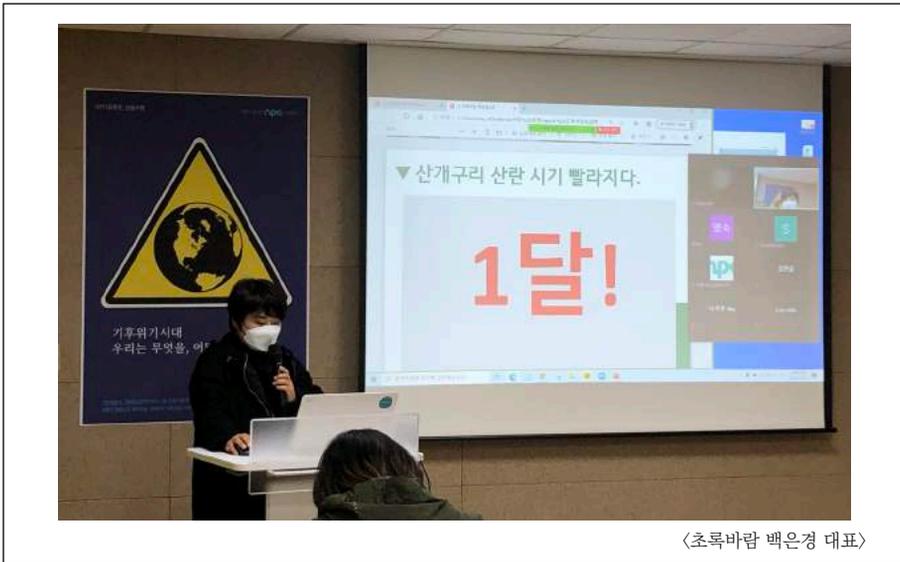
이러한 행사를 통해 그림뿐 아니라 시, 디자인, 동화, 삼행시, 퀴즈 등을 통해서 양서류의 생태와 서식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훗날 어떤 추억으로 양서류를 기억하게 될지 기대되는 공모전이기도 합니다.



초록바람 이미지 제공

#강동구 깃대종 서포터즈

초록바람은 지난 10년 동안 모니터링 기록을 발판으로 해서 강동구 깃대종 후보 종을 6가지 발표하였는데요, 깃대종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생물 서식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는 깃대종 서포터즈는 깃대종 홍보 영상 나레이션과 깃대종 관련 사진과 그림, 웹툰을 제작하여 야생 생물 서식지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을 나무판에 적어 산책길을 따라가는 숲을 지키는 이야기 나무판 활동과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 그리고 야생 생물이 살아가는 숲 내부를 보전하기 위한 셋길 방지 캠페인, 야생 동물의 먹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토리 저금통 달기. 그리고 아이들이 생태감수성 교육을 통해서 생물 서식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록바람 백은경 대표〉

#문화예술 활동

강동구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기록을 사진으로 담아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물 사진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생물다양성 기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세밀화 기록, 손뜨개 기록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고덕천 모니터링을 발판으로 해서 고덕천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와 생물들을 매개로 한 창작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강동구에서 서식하는 잠자리를 가지고 창작동화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고요. 인형이나 캐릭터를 만들어서 도시개발로 사라지는 생물들에 대한 기록을 현장과 함께 담아서 생명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박사님은 자연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의 문제가 과연 자연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자연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자연의 문제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것 또한 역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에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실천할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 자신에게 되물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불편함을 감수하고 행동해야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용맹이 삼총사 창작공모전에서 맹꽁이라는 시를 가지고 지금 현실의 모습을 잘 표현한 친구가 있어서 낭독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맹꽁이

〈배재고등학교 2학년 김태진〉

어리석고 둔한 사람들이 멍하다 말하지 마라,
맹꽁이는 생태계의 변화에 민감하다

욕심 많고 고집스런 사람을 공하다 부르지 마라,
맹꽁이는 맹 혹은 공 한 음절로 운다

양서류라 징그럽다 하지 마라,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종 2급이다.
생태환경 지표가 되는 법적 보호종이다.

맹꽁이 존재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상의 환경임을 기억하라.

질의응답

Q 아이스팩 수거 조건이
회사 로고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A 선별 구분하여 용도를 달리해 재사용합니다.

- 백명순 대표

현재 강동구 18개동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구요.
여기서 수거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로고가 없는 것과 A4용지
1/2 크기로 상인들이 선호하는 것을 선별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
지는 폐기하거나 방향제 만드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로고의 여부가 상관없
는 재활시장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Q 풍력발전이나 지열발전 등 문제점도 생각해보셨나요?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점은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A 재생가능에너지의 특성을 살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최승국 이사장

당연히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풍력의 경우 우리나라는 바람이 많은 산지를 선호하는데 그런 곳은 생태적으로 잘 보존되어야 할 백두대간 마루금이거나 각 정맥들이어서 갈 수 없습니다. 바다로 가게 될 경우 해상풍력은 주민들의 어업권과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풍력발전이나 태양광은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크고 빠르게 가려고 하다 보니 자연을 훼손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발전소를 세우게 되고 원래 취지와 다른 구조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보완되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 면에서도 재생에너지는 목표 달성보다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방식으로 가져가면서 주민들의 실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열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열을 하다가 포항에서 지열 때문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태양광과 풍력, 조력이 있는데 조력발전의 경우에도 소규모로 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가로림만 같은 곳에 거의 100만 kW로 하려고 가로림만 자체 수로를 다 막는 작업을 했었어요. 당연히 주민들의 반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재생가능에너지는 소규모 지역 분산형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장 참여자 의견

참가자 소감

우선 공론장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강동구 소속 구의원 국회의원 분들이 참석하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요구할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하는 것은 더 이상 멈춰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론장에서 제가 몰랐던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례 발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폐지를 모으는 분들이 있어 재활용이 높지만 소득이 낮고 노인분들에게는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일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그림 창작활동과 친환경 패키지 개발이 더욱 확대되길 응원합니다.또한 주부라면 아이스팩 재활용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이 되는 불필요한 생산이 문제입니다. 아이스팩도 규격에 맞춰 공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어 재사용 가능하도록하며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던 숲의 생명들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책이 아닌 숲에서 알게하고 지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과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님 발표를 들으면서 왜 전 기료를 올리지 않는걸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왜 종량제 봉투값은 그대로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첫 공론장으로 질의와 토론할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을거라 생각이 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길 바랍니다.다음 공론장에서는 꼭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담당 공무원을 함께 초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성욱(그린맘'자구온도지킴이모임' 대표)

환경단체 뿐만아니라 각 개별 집단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직면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시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주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의 의제를 만들어가는데 공동 행동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갑작스런 비대면 온라인 진행으로 인해 준비가 미흡한 부분은 아쉬웠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 김선민(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

동남권NPO지원센터의 자치구 공론장 사업을 통해 강동구에 서도 "기후위기와 지역사회 과제"라는 주제로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대응단계에 맞춰 현장에는 발제자와 사전 참가접수자로 제한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행사에 참여한 분들까지 5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의 기후위기시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과제에 대한 발제는 풍부한 연구와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어진 강동지역 4개 단체와 모임의 활동사례 발표는 지역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그 방식도 매우 혁신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특히 예비사회적기업 아립엔위립의 노인세대와 환경의 문제를 융합한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비즈니스와 사회적미션이 더해진 활동 모델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공론장에 참여하면서 기후위기시대라는 담론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의 생활과 연관되어진 문제라는 인식과 작은 생활실천으로부터 공론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주민이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 류양선(강동PM)

매우 의미있는 공론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후위기라는 절박한 의제라서 그랬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참여하는 모임과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던거 같습니다.

최승국 강사님의 여는 강의도 좋았고 이후 각 모임에서 행동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발표하는 내용들도 많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좀 자료공유와 온라인 연결이 원활하지 못했던게 아쉬웠지만 많은 분들의 수고로 잘 마무리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제인 만큼 지속되는 공론장과 활동들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할 힘과 지혜를 지역에서부터 모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식 (가족합창단 '화모니' 공동대표)



〈강동구 NPO 공론장 참가자 단체 기념 촬영〉

동남권NPO지원센터

2020 활동공유회

×

2021 공동의제 공론장

2020.12.15

NPO공론장 안내

2020년 동남권NPO지원센터의 활동들을

돌아보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진행된 자치구별 공동의제

(서초:인권, 강남:청년주거권, 송파:먹거리 정의, 강동: 기후위기 공동대응)를

확인하고, 2021년 동남권NPO 공동의제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동남권NPO 공론장 개요

동남권NPO지원센터 2020 활동공유회 X 2021 공동의제 공론장

2020.12.15 (화) 14:00~17:00 / 온라인 Zoom 공론장

[1부] 2020 활동보고

시간	내용	발표자
14:00 ~ 14:10	동남권 NPO단체현황 및 정책연구 보고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김성진
14:10 ~ 14:20	동남권 NPO활동가 아카이빙 보고	이노소셜랩 고대권
14:20 ~ 15:00	자치구별 공론장 보고	자치구별PM 서초:조진영,강남:남영일, 송파:이승희,강동:류양선

[2부] 2021 공동의제 공론장 -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과제

시간	순서	내용
15:00 ~ 15:10	열기	위정희 센터장
15:10 ~ 16:10	본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 브레이킹 -내가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 액션 플랜 찾기 -우리가 실천 해 나갈 기후 위기 대응 행동은? • 액션 플랜 정하기 • 의사 결정
16:10 ~ 16:30	닫기	발표하기 마무리

분임토의_서초구 1 분임

퍼실리테이터 : 한혜영(만을재)

기록 : 조진영(서초PM)

박주영(소담), 박재희(서초나비마을넷), 김혜옥(서초나비마을넷),

권송자(교육과 시민), 구자희(투팜공동체)

한혜영(FT) 기후위기 관련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과제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 체감정도를 숫자로 표현해보겠습니다.

○ 내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평균점수 9.1

10				
9				
8				
7				
6				
5				
4				
3				
2				
1				
	박재희	구자희	조은진	박주영

공동캠페인

- 껌창은 불편함
- 제대로 만들기, 제대로 쓰기, 제대로 버리기, 제대로 활용하기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가와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은?

-개인적 과제

자원의 선순환	제대로 버리기, 제대로 재활용하기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하기
나부터 실천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일상에서 텀블러, 손수건 사용
		텃밭농사에서 비닐 대신 짚이나 나뭇잎 사용
		일회용 현수막 대체, 광목 현수막 사용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화장품, 비누, 세제, 자동차 등
	에너지 아껴쓰기	대중교통 이용, 가정 내 에너지, 자원 아껴쓰기
	채식 식단 실천하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18%)하는 육식 지양, 친환경 먹거리 실천
공유와 확산	sns로 공유하여 함께 하기를 촉진	

-조직적 전략

공감과 실천	불편함이 관찮아질 수 있음을 체험하고 교육	
	기후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이 지속될 수 있는 동력
공유와 확산	텃밭 농사	기후변화와 생태변화에 대한 교육 함께 실시
	업사이클링	'버려지면 쓰레기, 활용하면 자원'을 체험하고 나누는 장 운영
	지역활동 지원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지역 내 활동을 발굴, 홍보 및 지원

-사회적 과제

현황 파악	지역의 상황 분석이 먼저	
	지역 공동과제 발견 및 실천방안 논의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지역의 기후대응 정책을 찾아 모니터링	새 안, 개선안 제안
정확한 정보의 공유 및 공감대 형성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체감도가 높은 정확한 정보 전달	
	대체물품 구매 안내	제로웨이스트 가게 지도 맵 등
	제대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 안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절약 방법
	실효와 편리를 위한 생산업체와의 협력	

- 발표: 박재희

분임토의_서초구 2 분임

퍼실리테이터 : 홍진선

기록 : 서지영(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정재숙(한살림 남서부지부), 양태원(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심윤수(포커스아레테), 박상윤(코리너즈 Koreigners), 남궁정(노동도시연대), 한재춘(도시농업공동체투팜)

홍진선(FT)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서초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개인적, 조직적, 사회적 과제를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떤가요? 각자 느끼는 기후위기 체감 정도는?

○ 내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평균점수 9

10					
9					
8					
7					
6					
5					
4					
3					
2					
1					
	정재숙	양태원	심윤수	박상윤	남궁정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

-개인적 과제

일상의 남은 종이 모으고 아껴쓰고 필요한 곳에 전달하기
연비를 생각하여 하이브리드차 사용, 전기차 구매-대중교통이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탄소 줄이기
환경에 관한 영상 등 일상 캠페인

-조직적 전략

활동가들이 모여서 정책이해, 다양한 실행 모임 활성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보 공유의 장 운영이 필요하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가 함께 요구	사회적 과제로 주장
서초구의 현황, 공공이나 행정 서초구 소재 기업 기후위기 실천과제를 요구, 압박	
서로 연대하고 각자 고유의 역할을 할대 기후위기 관련되어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	

-사회적 과제

탈 정치적 요소 진행,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정치색을 자제
풀뿌리 민주주의와 그린뉴딜의 조화

- 발표: 남궁정

분임토의_송파구 분임

퍼실리테이터 : 임채형, 김은경

기록 : 김희선(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참여자 : 이승희(송파PM), 이희승(송파아이쿱생협), 박태길(좋은마을공동체),

김기조(스포츠교육개발원), 박지선(송파시민연대), 문재욱(위례시민연대),

공유선(커뮤니티허브공감), 황혜정(송송)

임채형(FT) 기후위기 비상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 있을지에 대해 논의 해보려 합니다. 먼저 참여자 여러분이 느끼는 기후위기 체감 정도를 숫자로 얘기해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내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평균점수 8.1

10									
9									
8									
7									
6									
5									
4									
3									
2									
1									
	김은경	이승희	이희승	김기조	문재욱	황혜정	공유선	박태길	박지선

□ 공동캠페인

-눈에 보이게 하라

:문제점, 과정, 해결방안까지 눈에 보여야 생각하고, 체감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가와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은?

-개인적 과제

개인의 인식 전환, 성찰 필요, 생활양식 전환(재활용품 사용 등) 필요
채식 중심의 식생활

-조직적 전략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교육
개인보다는 기업의 차원에서 노력 필요, 법적 규제
모든 시민이 문제로 알지만 해결의 주체가 나뉨. 정부, 시민, 단체 조직보다 소비자 등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 -> 이 문제를 npo센터, 각 기관들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지역 내 활동을 발굴, 홍보 및 지원

-사회적 과제

자원순환과 자연보호 생태순환
개인적 실천보다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규율 조례 등 법이 필요
캠페인 필요

- 발표: 공유선

분임토의_강남구 분임

퍼실리테이터 : 이윤경

기록 : 강지영(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참여자 : 남영일(강남PM), 김다희(강남청년네트워크), 임상원(강남청년네트워크),
 김은정(강남아이쿱생협), 소경은(강남아이쿱생협), 김경애(공감플랫폼), 노미진(공감플랫폼),
 김시홍(강남마을넷)

이윤경(FT) 기후위기 비상문제에 대해 강남에서도 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실천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 조직, 사회적과제에 대한 논의 후 5~10분 정도 내용을 정리하고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기후위기를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내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평균점수 7.5

10							
9							
8							
7							
6							
5							
4							
3							
2							
1							
	김다희	남영일	임상원	김경애	소경은	노미진	김시홍

□ 공동캠페인

- 기후위기 비상행동, 끊임없이 외치고 쉬없이 지속적으로 함께 실천하자
- ‘툰베리가 아니더라도 모두 함께!’
- ‘잠정적 유토피아, 친환경 강남’
- Coal-off, Echo-power(콜오프/에코파워)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

-개인적 과제

작은활동 계속하기
정보를 계속 접하고 전달하기, 최대한 참여하기
음식 쓰레기와 소비 줄이기
자전거 이용하기
육식 줄이기
환경과 관련한 공동협약을 어기는 제품의 불매운동, 친환경 소재 사용 기업 등 후원

-조직적 전략

단체 내 협업과 연대,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화(캠페인, 공론화)
소비자기후행동 조합원 목소리를 모아 지속가능한 지구 살리기 활동
반환경적인 기업에 대한 불매활동 등 조직적 액션 필요
환경활동가 양성
탄소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회적 과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주권이라는 생각으로 시급함을 가지고 외쳐야 한다.
일회용품 소비에 대한 환경부담세
함께 공감하는 인식 형성과 기업이 수거방법과 회수에 대한 책임을 공식화하는 과제가 실행되도록 촉구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부 인력과 예산 증액 필요

• 발표: 임상원

분임토의_강동구 분임

퍼실리테이터 : 채은순

기록 : 최은희(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참여자 : 류양선(강동PM), 오금옥(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주인옥(강동정원문화포럼),

백은경(초록바람), 조기옥(강동마을미디어네트워크), 김선민(생태보전시민모임),

박성식(화모니), 정정애(아우름강동장애인부모회),

채은순(FT) 자기소개와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시겠어요? 0-10까지, 기후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시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점으로 갈수록 심각하게 인지하는 정도로 생각해주세요.

○ 내가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정도는? 평균점수 8.2

10						
9						
8						
7						
6						
5						
4						
3						
2						
1						
	오금옥	박성식	주인옥	백은경	조기옥	정정애

• 공동제안

강동 차원에서 민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의 자리가 네트워크를 촉발하는 자리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동 기후 위기 행동과 같은 네트워크를 꾸리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류양선 (강동PM)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까?

-개인적 과제

재활용이나 쓰레기에 대한 다양한 실천방안 공유	종이컵 사용횟수 줄이기, 분리수거 꼼꼼히 하기
전기사용 줄이기	태양광 패널 설치
	전기 없는 날 정해서 실천하기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전기, 보일러, 가스, 자동차,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사용 줄이기 등 일상의 전환, 대중교통이용하기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기	미니태양광 설치, 친환경 차량 사용하기
이산화탄소 줄이기	작은 나무 심기
어린이 환경 교육, 참여 프로그램 개발	대중교통 이용, 가정 내 에너지, 자원 아껴쓰기

-조직적 전략

과대포장 줄이기	기업에 요구, 시민운동 제안
기관, 기업에서 먼저 실천하기	종이컵 사용하지 않기,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하기 장려 캠페인,
자원순환 교육, 제대로 알기	우리 자치구 쓰레기 수거방법 바로 알기
다양한 모임과 협의체 구성 -교육과 캠페인	민간영역에서 기후행동네트워크 필요
환경 개선, 기후위기 행동 프로젝트	기후위기를 소재로 노래 만들기, 영상 제작 등

-사회적 과제

자연생태계 보호와 녹지 보존	정책차원에서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 강구
자본주의 시대의 구조 전환	대량생산, 소비, 폐기를 지양
기후위기 교육과정 개설	전문강사 양성

- 발표: 백은경

2020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발간자료

자료집 (4종)

- 1) 공익활동가역량강화
- 2) 예비활동가NPO학교(NPO클라쓰)
- 3) 단체운영역량지원
- 4) 동남권NPO사업지원

보고서 (2종)

- 1) 동남권NPO현황조사 및 생태계 맵핑 연구보고서
- 2) 동남권NPO활동 아카이빙 결과보고서

활동보고서 (1종)

- 1) '동남권NPO연결을 경험하다.' (2020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활동보고서)

기록집 (2종)

- 1) 동남권NPO공론장 기록집
- 2) '동남권 50인 공익활동가의 또다른 이야기' - 아카이빙 기록집

영상 (5종, 17편)

- 1) 동남권NPO지원센터 홍보영상(1편)
- 2) 개소식행사영상(3편)
- 3) 개소식축사영상(6편)
- 4) 개소식축하영상(1편)
- 5) 동남NPO컨퍼런스영상(8편)

2020 NPO공론장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인 위정희

발행처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05702)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15, 3층

전화 070-7714-8141

블로그 https://blog.naver.com/sse_npo

이메일 support@ssenpo.kr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사)커뮤니티허브공감(이사장 이의영)에서 수탁운영합니다.

-since 2020.3.6.

센터장 위정희, 네트워크 팀장 공병각, 홍보 강지영, 교육 신미경, 회계총무 정해빈,
공익지원활동가 서지영, 최은희, 김희선이 함께 지원활동 하였습니다.

*공론장 기록은 벨류가든의 최은영, 최신희님이 함께하였습니다.

동남권NPO,
연결을 경험하다.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
NPO공론장 기록집